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가정을 주시고 또 자녀 주심을 감사드리며,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대로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6-7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8년 5월 26일 (토) 제 1683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모든 교인이 참가하게 만들라!

칠드런미니스트리, 2018년 VBS와 탐5 교재 소개

교회학교에서 5월은 1년 중 가장 특별한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여름성경학교의 계절이기 때문이다. 교회학교마다 알찬 성경학교를 준비하기 위해 교회학교 담당 목회자들과 교사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준비하는 때다. 바로 5월이다. 교회학교에서의 여름성경학교는 적절한 교육시간과 집중적인 교육의 효과로 인해 가장 비중이 큰 행사다. 그러나 일부 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교회가 여름성경학교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가 많지 않고 그 결과 또한 기대를 미치지 못하는데, 교회학교의 고민이 있다.

교회는 금년 여름성경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그저 연례행사로 생각하고 그냥 과거 그 방법과 형식으로 해치워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주변 커뮤니티에서 사는 불신자 어린이들에게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믿는 아이들에게는 영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칠드런미니스트리(Children Ministry)는 VBS시즌을 맞아 1,500명 이상의 주일학교 목회자들에게 어떠한 주제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할 것인지를 물었다. 우선적으로 선정된 탐 5가지 주제들과 운영 방법들을 간단하게 소개한다.

온 교회가 집중...교인들이 기도로, 봉사로, 헌금으로 함께 구슬땀 흘리도록

1. Wrecked by Group (Ages 3-11)

"타고 가던 배가 무인도에 난파되고, 바로 예수님이 구조해 주신다"는 주제로 진행된다.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께



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앞으로 말미암으리라"(벧후1:3)가 주제 성경 말씀이다. 마치 큰 경기를 앞두고 학교 전체가 준비를 하는 것처럼 모두가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어떻게 경기를 할 것인지?"는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공동체로 팀을 모으시고, 훈련시키셔서 구원을 축하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있는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드신다.

3. MEGA Sports Camp (Preschool to Grade 6)

커뮤니티 아웃리치 프로그램으로 정평이 난 메가 스포츠 캠프는 운동과 성경 말씀의 적절한 균형을 통해 VBS에 참가한 불신 아동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 따라서 개인 중심이 아니라 팀 전체가 주



인공이 되고, 팀 우선 즉 공동체 정신을 배우게 된다. 특히 성경 공부 시간에는 단순한 주일학교 교육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 결론에 이르게 한다. 따라서 코치로서 여름성경학교 스태프들이 봉사하게 된다.

4. Rolling River Rampage by Cokesbury (Preschool-Age 3 to Adult)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사43:2)가 주제 성구로, 급물살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5. 교회 주일학교/교육부서 자체에서 만든 VBS 교재 사용

<3면으로 계속>



GMS '2018 세계선교대회'를 소개하고 있다. 우측부터 이병구 목사, 이사장 김찬곤 목사, 엘리자벳 김 선교사.

GMS총회선교회 제 3회 세계선교대회 연다

6월 25-28일 대전 새로남교회

GMS(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 '2018 세계선교대회'를 앞두고 이사장 김찬곤 목사(안양석수교회 담임)가 미주지역을 방문했다. 총회와 미주 해외선교부를 돌아본 김 목사는 GMS 미주선교사 후원위원장 이병구 선교사, 미주 지부장 김명자 선교사와 함께 17일 JJ그랜드 호텔에서

계적으로 14개 지역 선교지부와 특별 지역도 세 곳이나 되는 GMS는 결국 '17개의 선교단체가 합쳐진 단체'라고 말한다. 김찬곤 이사장은 "GMS가 오는 6월 25일(월)부터 28일(목)까지 대전 새로남교회(담임 오정호 목사)에서 'G-Bridge!'란 표어를 걸고 총회세계

"복음과 열방, 세대 잇는 다리 될 것"

조찬 모임을 갖고 GMS 세계선교대회를 소개했다. GMS는 1998년 교단 총회에서 교단 내 선교 기구를 통합하고 교단 선교부를 확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Global Mission Societ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약칭 GMS)로 조직돼 올해로 20주년을 맞고 있다. 현재 GMS를 통해 세계 98개국에 2535명의 선교사가 파송됐고 전 세

선교대회를 개최한다"며 기도를 당부했다. 이번 대회에 해외선교사 700명, 국내교회 1000명, 선교단체 100명이 참여할 것이며 본 대회의 'G-Bridge!'란 표어 속에는 '복음의 브리지(Gospel Bridge), 열방의 브리지(Global Bridge), 세대간 브리지(Generation Bridge)'란 주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케퍼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	---	--------------------------------------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 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 346-0030 5 Binck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핸드폰 347-952-5442 1-800-404-1171 E-mail: gospelmail@hotmail.com

 시론 민경엽 목사 2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용 목사 7면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8면	 GMS브리질선교회... 강성철 선교사 14면
---	---	---	---

제4차 PGM세계전문인선교대회

KIMNET 공동주관

제3회 PGM선교사 집중훈련

2018년 10월 10일(수) 오후 6시 - 12일(금) 오후 10시

2018년 10월 10일(수) 오전 9시 - 14일(주일) 오후 1시

지역교회를 통한 전문인을 세우자!

대상	제4차세계전문인선교대회	제3차선교사집중훈련
등록	1차 8월 31일 마감: 개인 \$250(2인 1실), 지역참가 \$70 2차 9월 20일 마감: 개인 \$300(2인 1실), 지역참가 \$100	개인 \$300(2인 1실), 부부(2인) \$500 지역참가 \$100
훈련 내용	10일 선교의제4물결, PGM 4대 핵심가치 (디아스포라선교, Here & Now선교, 전문인선교, 지역교회중심선교) 11-12일 하나님의 쓰임받은 신/구약 평신도들, 전문인선교사들의 동반관계, 차세대 전문인선교전략, 전문인리더십, 전문인의 전략적 배치, 전문인선교전략과 대책, 해외 및 Here & Now 전문인선교사례, 13일 타문화화전도훈련, Here & Now 현장실습	파송 및 집중선교훈련을 원하는 전문인선교사 (스포츠, 교육, 의료, 미용, 어린이, VBS, 금융, 건축사역 등) 14일 수료 및 파송식

PGM 선교사로 파송되어 PGM 전문사역(지)에 격·간접적으로 참여 해외 및 Here & Now선교지에서의 전문인선교전략에 관한 30여개의 선택강의 29개국에 파송된 238명 PGM 선교사님들의 생생한 선교현장을 체험

장소 _ 필라 안디옥교회 (1 Antioch Ave. Conshohocken, PA 19428) | 문의 _ admin@pgmusa.org / www.pgmusa.org



교회 리더문화 형성하고 나누는 목회자 되라!

리더십저널, 오브리 맬퍼스 교수의 "리더 문화" 형성 이유와 노하우 소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군중을 위해서도 일하셨지만 무엇보다 제자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며 훈련시키셨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그들이 리더로서 해야 할 사역을 미리 준비시키신 것이다. 따라서 목회자와 함께할 유능한 리더들은 교회에서 찾아야 한다. 그들을 찾아내고 훈련해서 당신의 파트너로 만들어야, 건강한 리더문화가 교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이고 교회의 미래는 리더에게 달려 있다고 믿는, 기독교 리더십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자 맬퍼스 신학대학원의 목회학 교수이며 목회 상담과 지도자 훈련을 전담하는 맬퍼스 그룹(The Malphurs Group)의 총재, 오브리 맬퍼스는 교회의 리더십 훈련에 반드시 리더 문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들과 함께 공동 체험을 통해 가치관을 세우고 관점을 넓히며 신 입견을 바꾸고 관계를 강화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좋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의도적으로 공동 체험을 만드셨다. 수련회, 커피 모임, 운동회 등이 모두 공동 체험이 될 수 있다.

△공간: 공간은 무의식중에 리더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목회자는 건물 구조나 의자배열까지도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교유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가치관에 따라 공간 환경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며 그에 따라 교유의 문화가 형성된다.

리더문화=리더들의 상호작용으로 생겨나는 사고방식과 행동 교회 정체성 수립하고 문화가 전이되며 긍정적 영향 줘야

아파트나 주택단지 보면 한 가지 신기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집들은 전부 똑같이 생겼지만 그 안에 있는 가정들은 서로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가정'은 집이라는 건물이 아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를 의미한다. 가족들의 가치관, 태도, 생활 등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가정'이라는 환경은 그 집 에 사는 사람들에게 '집'이라는 건물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넓고 허름한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 있는 반면 호화로운 집에서 비참하게 사는 가정이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교회의 리더문화도 마찬가지다. 각 목회자들이 모두 동일한 훈련 방식과 내용으로 리더를 훈련하고 세우더라도 그 결과는 분명 다르게 나타난다. 그 차이는 바로 리더문화의 유무에서 비롯된다.

마케팅 전문가 조지 바나(George Barna)는 리더문화를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의미와 정체성을 제공하는 지식과 신념, 가치관, 도덕관, 규정, 법 등의 복잡한 혼합 작용이다"라고 정의한다. 쉽게 말해 리더문화는 리더들의 상호작용으로 생겨나는 사고방식과 행동이라 할 수 있다.

리더문화는 교회의 정체성을 수립한다. 리더뿐만 아니라 소속 구성원들이 한 방향으로 정렬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매개체 역할을 담당한다. 또 리더문화는 사고와 행동을 전이시킨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와 형성하신 리더문화가 전이되어 초대교회의 내·외연이 형성되었듯이, 리더문화는 리더와 소속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고와 행동이

내·외연적으로 전이되게 한다.

그리고 리더문화는 궁극적으로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리더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교인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교회 전체의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리더문화는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리더문화는 어떻게 형성할까? 리더문화에 대해 말하는 것만 실제로 문화를 형성하는 것처럼 쉽지 않다. 목회자는 교회 리더문화라는 작품을 창조하는 일종의 작가와 같다. 화가가 특정한 붓과 화법(技法)을 사용해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듯이 목회자는 다음의 도구들과 방법을 활용하여 리더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

1. 문화를 형성하는 5가지 기본 도구

문화 창조자인 목회자는 이야기, 상징, 공동 체험, 공간, 성경이라는 5가지 형태

의 붓을 사용해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 각각의 요소는 독특한 방법으로 리더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이야기: 교회 리더문화 형성의 큰 몫을 담당하는 목회자는 예수님처럼 이야기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상징: 상징은 문화를 반영하는 매체다. 십자가와 같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상징 외에도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상징을 많이 만들 때 리더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

△공동 체험 : 교회 핵심 리더

△성경: 목회자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문화 창조의 그림을 위한 붓으로 활용해야 한다. 목회자와 리더들이 모여 성경을 공부하고 실천할 때 가치관과 사고방식, 태도, 행동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방향으로 정렬돼 가게 된다.

2. 문화를 형성하는 4가지 화법(畫法)

문화 창조자는 다양한 종류의 화법을 사용해야 한다. (3면으로 계속)



시론

배운 사람은 가르쳐야 한다!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의 미래가 밝지 않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주일학교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가장 큰 교단이라 할 수 있는 장로교 합동측이 2천 개의 소속 교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8.9%가 주일학교가 없다고 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74%가 아이들이 없기 때문이고, 14.3%가 운영할 형편이 안 되어서라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총신대학교의 어떤 교육학과 교수는 한국교회 전체로는 약 50%의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교회 현실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그런 이유들 외에 주일 학교 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특별히

이민교회의 경우, 이중 언어를 해야 하는 현실이기에 더욱 교사의 부재가 큰 이유가 된다. 교사가 부족하다고 할 때마다 내가 받은 '선생님'의 은혜가 떠오른다.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반에 배정된 여선생님은 누가 보아도 병색이 역력했다. 그 분은 자신의 병 때문에 곧 하나님께 가야 할 텐데 교사로서의 소명을 하나님을 믿 면목이 서겠다는 생각으로 헌신하셨다. 그 선생님은 우리 남자반 아이들 열두 명을 열두 제자라고 하면서 좋아하셨다. 우선 그분에게는 듣는 귀가 있었다. 우리는 막 사춘기에 접어들어 부모님에게 털어놓을 수 없었던 비밀스런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었고 선생님은 다 들어주셨다. 그때는 한없이 중요했으나 지금 생각해 보면 별 일도 아닌 우리의 연애 감정 같은 소소한 이야기들을 때로는 밤을 새워가면서 들어주었고 대답해 주셨다. 당시 선생님은 우리 영혼의 해방구였다. 그러다가 내 경우는 신앙이 생겼고 목사를 할 마음 까지 자리 잡았다. 그 선생님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지방으로 전도 집회를 나가자고 하셨다. 당시로서는 아무도 생각지 못한 엄청난 경험이었다. 어린 나이에 그런 일에 도전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신기했다. 그때부터 나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자각이 들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는 공군 하사관으로 근무하는 신학생인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배정되었다. 군인답지 않게 늘 용모가 립수룩한 선생님은 자신은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목사가 되면 농촌으로 돌아가서 덴마크의 그룬트비 목사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흠 사랑"을 실천하고 싶다고 임버터처럼 말씀하시곤 했다. 그러면서 시영 어린이보호소 같은 곳들을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함께 하였다. 당시 우리들에게 그 선생님은 '우상'이었다. 저렇게 우리 역시 세상을 위해 살아야 하며, 저 선생님이 농촌으로 돌아가 사역을 시작하면 반드시 도와드려야 한다는 일종의 사명감이 생겼다. 평소 애용하셨던 대로 그 선생님은 지방의 산골 깊은 곳에 들어가 방학 때만 되면 그 지역의 중학생들을 위해 도시의 젊은이들을 끌어들여 농촌을 계몽했다. 그러다가 그 학교가 자라서 이제는 어엿한 대학으로 발전하였고, 우리 제자들 역시 약속하지만 형편껏 돕고 있다. 지금도 그 선생님은 우리들의 자랑이다.

대학과 신학생 때는 교회의 전도사님이 나를 섬겨주셨다. 내가 그분 밑에서 교사이기도 했지만 헌신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지도해 주는 멘토이셨다. 가끔 내 어려운 형편을 알고는 자신도 어려우면서 선뜻 등록금을 내주시기도 했고, 목사의 길을 가르쳐주셨다. 이분은 평소 선교에 뜻이 있으셔서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셨는데 선교지에 가셔도 나를 변함없이 지도해 주셨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서신을 보내어 지도해 주었던 것처럼 꼼꼼하게 편지글로 대 여섯 페이지의 장문을 써서 보내주곤 하셨다.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모든 편지를 모아 보니 그분과 나 사이에 오간 편지만도 100여 통이다.

세 분 중 두 분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목양의 길을 걸어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들은 늘 내 마음속에 있다. 목회의 현장에서 종종 그분들을 생각하며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를 되짚어보곤 한다. 목회가 어려울 때면 그분들 중의 한 분을 떠올리며 '그 선생님은 이럴 때 내게 어떻게 조언하실까?'를 생각하곤 한다. 그러면서 내가 '선생님들의 은혜를 풍성히 누린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목자가 되기를 다짐하곤 한다. 또 한 우리교회 교우들에게 이런 영적인 선순환의 법칙을 강조하면서 누군가에게 배우든지 누군가를 가르치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함을 강조한다. 모르는 사람은 배워야 한다. 배운 사람은 가르쳐야 한다. 이런 영적인 선순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진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교회들마다 다음세대의 부흥을 위해서는 좋은 교사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주여,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소서!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 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 (323) 865-0009 (대 표) (323) 865-9025 (광고국)
Fax: (323) 865-0056 (편집국) (323) 865-0046 (광고국)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표) (718) 886-4424 (편집국)
Fax: (718) 886-0074 (대표)
E-mail: nyk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 (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Ph.D. in Leadership

사역 리더십 박사학위 과정

MBA. 이수학점: 48 Credit Hours

Global Leadership 글로벌 리더십 / Global Business 글로벌 비즈니스 Asset/ Investment Management, 투자, 부동산투자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공공정책과 행정학 입학자격: 대학졸업자 및 동등학력자

Doctor of Leadership 이수학점: 48 Credit Hours

Organizational/ Ministry Leadership 조직, 사역 리더십 Brain/ Gifted Education Leadership 두뇌개발, 영재교육 리더십 Entrepreneurial Leadership 경영 리더십 / Political Leadership 정치 리더십 International Aviation Leadership 국제 항공 리더십 입학자격: 대학, 대학원 석사이상자 및 동등자격자 전형방법: 서류심사, 이수 에세이, 일반상식, 면접

Ph.D. in Leadership 이수학점: 60 Credit Hours

Organizational / Ministry Leadership 조직, 사역 리더십 Brain/ Gifted Education Leadership 두뇌개발, 영재 교육 리더십 Entrepreneurial Leadership 경영 리더십 / Political Leadership 정치 리더십 International Aviation Leadership 국제 항공 리더십 입학자격: 대학, 대학원 석사이상자 및 동등자격자 전형방법: 서류심사, 이수 에세이, 일반상식, 영어시험, 면접

Certificate Programs 1년 과정

1. Ministry Leadership- 전도사, 신학생, 권사, 장로, 부목사 등.
2. Pastoral Leadership- 현, 담임목사

위 과정은 글로벌 리더십 연구원과 Midwest University 에서 수료증 수여함 목회자 리더십 과정은 최고의 교수진을 통해 각지역별 특강과 프로젝트에 참여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역자간 네트워크, 사역협력과 친선 및 미래사역 개발, 선교협력을 하게되는 과정입니다. *목회 리더십에 대한 강의와 연구, 모델 사역현장 답사, 글로벌 리더십 컨퍼런스를 통한 폭넓은 사역에 도전.

학위 취득방법 & 인증기관

학위, 학점 취득방법

- 1) 미국 유학을 희망 하는 학생은 SEVIS 1-20 혹은 J-1 Visa
- 2) 직장, 사역을 떠나지 않고 어디서든지 세미나, 소집특강, 온라인으로 학점취득
-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 4) M.Div 졸업자는 미국 재단법인 IEA 로 부터 목사안수 가능

Midwest University 는 미 국무부가 지정한 J-1, J-2 Visa Sponsor

인증기관

미국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www.ope.ed.gov/accreditation 미국 대학 학력인증기관 Accreditation. (CHEA) www.chea.org 미연방정부 교육부 대학코드 (USDE) OPE ID; 03528300

문의 :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홈페이지 www.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 730-4750 / Fax: (571) 730-4751
E-mail: wdc@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모든 교인이 참가하게 만들라

(1면에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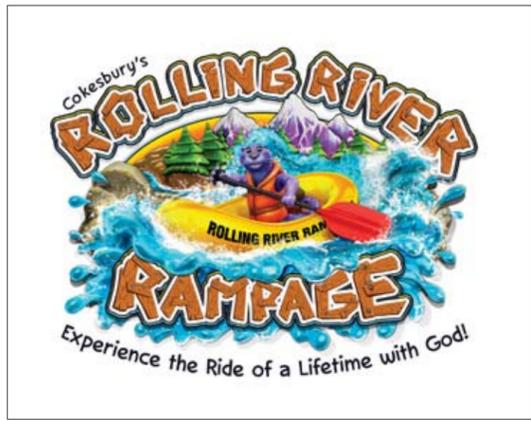
교회 교육부서에서 충분히 교재나 부교재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지역사회나 교회 여건에 적합하게 주제와 함께 교재를 만들어서 사용한다.

여름성경학교는 본래 교회가 그 시대의 문제를 인식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행해진 사회봉사활동이다. 1860년대부터 간헐적으로 해오던 것을 오늘과 같은 여름성경학교가 이뤄진 것은 침례교회의 로버트 지 보빌 목사가 1901년 자신의 사재를 갖고 빈민아동을 대상으로 뉴욕에서 했던 휴가학교운동이 시작이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거의 매일같이 성경, 선교이야기, 성경공부, 유희 등을 가르쳤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VBS 시작은 바로 불신 가정 자녀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 그리고 VBS를 통해 교육을 받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로 연계가 불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교육이 이뤄지고, 탄탄한 기반을 이루게 됐다. 한마디로, 교회 구조가 정상화되면서 주일학교로부터 장년부로 이뤄지는 건강한 구조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의 구조가 상

체는 우람한데 하체는 빈약한 역삼각형으로 변해가고 있다. 교인 가운데는 과외나 여름 특별 활동 때문에 교회학교에 보내지 않는 이들도 있으니, 사랑하는 아이들



을 위해 주머니 털기까지 노력하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부끄럽다. 이제는 교회와 교인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전 교인이 함께 하는 여름성경학교가 되도록, 담

임목사로부터 모든 교인이 기도하고 봉사하고 지켜보아야 한다.

결론으로, 예배, 성경공부, 특별활동, 찬양과 율동, 공동체 놀이, 약간의 물놀이가 대부분의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이다. 반면에 모태에서부터 영성문화에 익숙한 어린이들에게 무더운 여름날 교회 한 귀퉁이에서 풍나뭉치 루처럼 뻣뻣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찬양과 예배, 성경공부가 잘 전달되기 위해서 기독교 출판사마다 최선을 다해 VBS 교재를 만들었고 교회마다 이를 사용한다.

그러나 잘 만들어진 교재보다 중요한 것은 온 교인들이 기도로, 봉사로, 헌금으로 같이 구슬땀을 흘려주는 문화다. 한마디로, VBS에 교회의

총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교인들에게 알리고 참여하게 만드는 사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VBS에 생명을 거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자.

원로칼럼



박종순 목사 (총신교회 원로)

주변사람들(하)

필자와 동역하던 부목사가 큰 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해 활기찬 목회를 펴고 있다. 그가 필자 곁을 떠나며 꼭 필요한 목회 지침을 요청했다. 그에게 당부한 열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내하라. 참고 참고 또 참지 않으면 결승점에 이르기 어렵다.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아야 한다. 성공도 참고 실패도 참아야 한다. 찬사도 참고 굴욕도 참아야 한다. 소리 지르고 기뻐할 일도 그리고 목 놓아 울어야 할 일도 참아야 한다. 베블러도 참고 배고파도 참아야 한다. 바른 말도 참고 말 같지 않은 말이라도 귀에 담아야 한다. 아홉 번 잡다가 한 번 잡지 못하면 아홉 번의 인내가 무위로 끝나 버린다.

둘째, 서두르지 말라. 우리에게 매사에 서두르는 조금증상이 있다. 교회도 하루아침에 대형교회가 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신앙도 절치나 과정을 저버리고 순식간에 대가가 되기 위해 과속 패달을 밟아댄다. 신학공부도 하지 않고 목사가 되는가 하면 과정보다 밟지 않고 장로, 권사가 된다. 그러나 성공 목회란 서둘러 되는 것이 아니다. 심고 물주고 키워야 거목이 된다. 2-3년 안에 거목이 되는 것은 전신주일 수는 있어도 산 나무는 아니다.

셋째, 야단치지 말라. 야단맞을 사람은 목회를 책임진 사람이다. 솔직히 교인들은 야단맞을 일이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 주일마다 설교시간마다 호통치고 야단치면 분위기가 경직되고 말씀을 받는 분이 닫히게 된다. 시간 내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때마다 야단맞는다면 누가 좋아하겠는가?

넷째, 편애하지 말라. 이성과 리브가의 편애가 에서와 야곱을 갈라놓았고 두 족속의 분열을 만들었다. 좋은 사람과 싫은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과 밋나간 사람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이유 때문에 목사의 편애가 가시화 되고 노골화 하면 매우 기쁘고 끈이 파여 목회가 어려워진다.

다섯째, 실수하지 말라. 목사도 완벽한 존재는 아니다. 즉 실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빨리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자세를 낮추는 게 좋다. 괜히 호언장담한다든지 실수를 덮으려 들면 파장이 눈덩이처럼 커진다. 실수는 안 하는 게 좋고, 드러난 실수라면 겸허하게 수습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방이다.

여섯째, 인정받으라. 언어의 화려한 유희가 먹혀들던 시대는 지났다. 지금 우리는 정보공개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목회자의 인격과 삶, 언어와 삶, 신앙과 삶이 인정받지 못하면 천사의 방언을 구사해도 소용없음으로 치부해 버린다. 그 한계와 도전을 극복하려면 정직해야 한다.

일곱째, 영적 지도력을 회복하라. 목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교육 등 모든 면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목사가 설 자리는 영적 지도자의 자리다. 영적 지도력의 회복이나 확립이 안 되면 리더로서의 자격을 잃게 된다. 영성 넘치는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

여덟째, 울인하라. 목회란 전인적 사역이어서 울인의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승보다 패로 기울게 된다. 그래서 목회가 최우선이어야 하고 교회가 주된 일터라야 한다.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는 것은 패인을 덧칠하는 것이고 자기 양들을 배고프게 만드는 함정이 된다.

아홉째, 바른 교회론을 지키라. 교회는 건물이나 교인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목회는 그들을 울금에 가르치고 이끄는 행위다. 그런데 건물이 교회라는 오해 때문에 밋지고 건물 짓고 부도의 시달리고 그러다 와해의 벽에 부딪히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장로도 그리고 온너심을 장악하려는 그 어떤 집단도 아니라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분은 오직 주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열째, 균형을 지키라. 천천히 확실하게 지성과 영성, 이성과 감성, 말씀과 성령, 믿음과 행함 등이 균형을 잡는다면 바람직한 교회가 세워질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목사 주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뒤엉켜 있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 그들과 소통의 장 마련하는 일, 그래서 그들의 역량과 가능성, 잠재력과 미래성을 자원으로 동원하는 일, 바로 거기에 목회의 매력과 있고 긴장이 있다.

목회보다 힘든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목회만큼 보람차고 신바람 나는 일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목사, 이보다 더 좋은 사명의 길은 없다. 그래서 오늘도 기쁘고 좋다. iamcspark@hanmail.net

GMS총회선교회 제 3회 세계선교회 연다

(1면에서 계속)

또한 이 대회를 통해 111년간 이어온 개혁주의 신앙과 순교적 선교 정신을 계승하고 GMS 선교 20년을 맞아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의 과오를 통찰하는 시간을 가지며 한국교회와 선교 현지교회와 다음세대를 세워 선교의 동반자로 함께 가기를 원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이번 대회가 규모도 크고 쉽지 않은 대회지만 이 대회를 통해 한국교회와 선교현장이 하나 되는 선교전략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기 바라고 선교 동반자 관계를 확립하며 한국교회의 기성세대 성도와 다음세대간의 선교 브리지가 되는 대회가 되어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전하기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한 "선교사들이 개혁한 선교현지 교

회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선교사역 방향 전환을 격려하며 현지인 선교와 함께 하고 GMS 14개 지역 지부의 공동사역 개발과 사역의 전문화를 이뤄 건강한 GMS의 선교 정신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대회의 목적을 소개했다.

이 대회는 시간마다 소중하게 편성됐다. 영성회복을 위해 아침 경건회를 비롯해 저녁 선교부흥 사경회와 선교 특강 시간이 마련된다.

이 시간을 통해 국내외 선교신학자들이 바라보는 현대선교의 흐름과 GMS 선교의 정확한 진단과 방향성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현대 선교 이슈와 선교 전문화에 필요한 강사들을 대거 초청해 각자 원하는 강의를 듣고 해당 사역의 개발을 돕도록 구성했고 이외에도 지역선교부

전략모임, 다음세대 선교대회, 사역영역별 특강 및 네트워크 구성 등 지역을 초월하여 자신들의 사역 연구 자료를 공유하고 미래선교 전략을 세워 지속적인 사역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이병구 목사(GMS 미주선교사 훈련원 훈련원장)는 "중남미는 미주에서 자원을 발굴하고 정식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고 말하며 "미주선교사 훈련원을 통해 지금까지 제 5기 훈련생 훈련을 마쳤다. 은퇴 후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을 환영 한다"며 많은 분들이 선교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GMS 미국 지부는 5년 전 설립됐으며 현재 지부장으로 김명자 선교사(미국명 엘리자벳)가 섬기고 있다.

GMS 지부 연락처는 (626)733-1328, 훈련원은 (714)614-3666으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2면에서 계속)

△가치관대로 살면서 분이 되기: 문화의 핵심은 가치관이다.

목회자와 핵심 리더들이 가치관대로 살 때 가장 설득력 있는 화법으로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스스로 분이 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문화를 창조하는 일은 모래성 쌓기나 다름없다.

△가치관을 정의해서 손잡이를 만들어 주기: 문화를 형성하는 주요 가치관과 사고를 정의해주면 사람들은 그 가치관을 구체화해 다룰 수 있는 손잡이를 얻게 된다. 명확히 정립된 가치관은 사람들 생각

과 마음 안에 자리 잡게 되기 때문이다.

△점들을 이어 큰 그림 그리기: 많은 결정을 내리는 목회자는 언제나 교회 가치관과 방향성에 일관된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다. 교회안의 수많은 사역의 점들을 이어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열정의 불 당기기: 문화를 창조하려면 용광로처럼 뜨거운 열정이 필요하다.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사명을 고취하며 방향성을 제시할 때 열정의 불이 당겨지게 된다.

교회는 헌신적이고 유능한 리더를 양성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를 위해 애

써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은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리더십 위기를 극복할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교회에서 구체적인 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함과 동시에 좋은 리더문화를 형성해 교회의 정체성을 수립하고 문화가 전이되며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해야 한다. 교회의 리더인 목회자가 이와 같이 리더문화 형성에 매진할 때 건강한 리더십이 세워질 것이며 변화의 새 바람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할 것이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졸업예배 및 학위 수여식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초청의 말씀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본 신학교 제 29회 졸업 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다음과 같이 있사오니 많이 참석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졸업하시는 분들을 축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캐나다 분교 학위수여식은 본교에서 함께 거행합니다.

학위 취득자

- 목회학석사 (M. Div)
김주현, 김현석, 김희태, 박화중, 심성희, 엄순애, 이현택, 전성호, 현종영, Yu Jie Chen

- 여교역학과 (Diploma)
김선화

- 신학부 (B.Th)
장수자, 최의화

캐나다분교

- 목회학 석사 (M. Div)
김석남, 문대석, 제갈수미

일 시: 주후 2018년 6월 4일(월) 오후 7시
장 소: 퀸즈장로교회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연락처: (718)463-7163, (718)886-4040

미주한인예수교 장로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장 영춘 박사
이사장 김성국 박사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주여! 심는 대로 거두게 하지 마소서!

K는 어린 자녀를 데리고 빈손으로 시작해서 캐나다의 이민생활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한인들이 살지 않는 시골에 들어가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5개짜리 넓은 집과 독일제 고급 자동차도 마련했고... 아내는 밉코르도 가졌지만 타고 입고 보여줄 시간도, 기회도 한인들도 자기 주변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했지만 만족도 보람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고 부러워하는 이웃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 K는 우연한 기회에 두 시간 운전해가는 토론토의 한인 개척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격이 열정적이고 다혈질이라... 짧은 시간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 교회 살림을 도맡아 섬겼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기 사업처럼 빠른 시간 안에 잘 성장하지 않아 답답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담임목사가 양에 차지 않았습니. 이렇게 하면 쉽고 잘 될 텐데 성경대로... 성경대로를 고집하는 목사가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여러 번 건의했지만 통하지 않게 되자 K는 자기가 목회를 하면 잘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이 생각이 확신으로 이어지면서 신학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K는 목회자가 여러 번 바뀐 기성교회에 담임목사로 초청을 받아 자기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교

회 목회도 자기 사업하듯이 성격대로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주로 심방 목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빈자리를 채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금세 직분자도 세우고 교회가 많이 모인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동시에 신과 구과의 갈등으로 잡음이 있다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특이한 소문은 재정부장 장로가 담임목사의 사례비 체크에 일년이 넘도록 사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성격이 급한 K목사는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합행사 때에 우연히 그 K목사와 함께 한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목사를 격려했습니다. 얼마나 맘고생이 많으신가? 그래도 잘 인내하고 이기고 있다는 소문을 들으니 참 듣기에 좋았습니다. 더욱 힘내시기

바랍니다. 참 잘 했습니다... 위로를 했더니 대뜸 그 K목사님 하시는 말씀... "괜찮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중인 걸요." 잘 알아듣지 못하는 한 마디를 쏟아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다시 물었더니... "내가 장로 할 때 했던 그대로 지금 거두고 있는 중"이라고...

내일부터 우리 교회 교육관에서 목사고시를 치룹니다. 고시자 가운데는 이 세 예배당 건축위원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기공 예배하는 날부터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서 완공된 세 예배당에 와서 시험을 치룹니다. 얼마나 맘이 불편할까를 생각하면 오히려 내가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심는 대로 거두게 하지 마소서!"

jkim47@gmail.com

푸/른/초/장

이규본 목사 (주비전 교회)



지난주는 성령강림 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 후 오십 일째 되는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여 성령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강림하여 성령이 충만하였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고린도교회처럼 예수를 주로 믿는 신실한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성령이 계신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단 하루라도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며 성령의 전이 될 수 있습니까?

나눔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나오는 자는 다 아들로 받아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 놀라운

회도 그러하리라"(17절). 사도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더럽히고 파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될

식하게 하는 것이 교회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죽어갈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인들이 유식한 설교를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익한 정보들을 세련되게 들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즉 십자가의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넘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넘어서 그리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눅 9:23). 예수님이 우리 죄를 책임지셨으니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모두 십자가에 처형당할 각오를 하고 십자가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십자가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헬기도 죽어야 하고, 자랑도 죽어야 하고, 야망도 죽어야 합니다. 그때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영광과 능력과 신성

입니다.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소생하게 됩니다. 절망과 비참한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소망을 얻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23절). 이 말씀은 소망의 신앙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이 세상에 있는 "세계가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22절)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가진다고 그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실체는 이 세계가 다 우리들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인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도 소망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롬8:24). 소망이 넘치는 교회로부터 생명이 흘러 나와 세상을 구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bonerhee@gmail.com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23절)

1. 성전으로서의 교회(16절)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계셨고 그 성전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에서 실제로 예배드릴 때 사람들은 죄 용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곳에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라든지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지만 그 성전에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셨습니다.

선언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주로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곳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이곳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모실 수 있습니까?

우리 입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단 하루라도 범죄 하지 않는 날이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들은 성령을 모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 피가 우리의 죄를 덮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죄를 용서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을 받고, 세사람으로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내 속 깊은 곳에 있는 죄를 용서하시며,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며, 내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2. 십자가의 신앙(17절)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

것입니다. 공동체를 더럽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이고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항상 거룩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숨어있는 죄'를 다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의 사생활에 대하여 전혀 아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때에도 야간이 범죄하여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럽히는 행위로 인간의 숨은 죄가 있었습니다. 야간은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가 범죄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야간의 죄를 찾아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날이 없고 단 하루라도 말이나 마음이나 행동으로 범죄 하지 않는 날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고 성전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 교회 안에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많이 끌어들이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좋은 프로그램, 음악 등 들어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교회의 문제는 세상의 지식과 가치관과 사상과 지혜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진리와 함께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이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유

도 밖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죄가 들끓는 세상 속에 살더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우리는 하나입니다(갈2:20).

과 거룩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3. 소망의 신앙(8-23절)

교회는 언제나 소망을 주는 곳임

담임 목사 청빙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중부노회 (Midwest Presbytery)에 소속된 빌립보 장로교회에서는 담임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하고자합니다.

청빙지원 자격

1.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KAPC) 교단에 현재 소속 되신 분, 혹은 NAPARC (North American Presbyterian & Reformed Council) 의 정회원 교단 (www.naparc.org 참조)에 소속 되신 분
2. 2중언어(영어와 한국어)로 설교 가능하신 분
3.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소지하신 분

지원서류 및 설교

1. 이력서
2. 신학대학원 (Seminary) 졸업 증명서
3. 총회 목사 고시 합격 증명서
4. 목사 안수 증명서
5. 추천서 (목사 2인)
6. 노회 소속 증명서
7. 설교 한 편
 - 1) 설교 원고-1500단어 내외 (영어)
 - 2) 설교 원고에 입각한 약 25분 길이의 설교 CD 또는 DVD 또는 USB (영어편, 한국어편 따로)
8. 가족 사진 한장

지원 절차 및 마감

1. 2018년 7월 16일 (우체국 발신일) 까지 위의 모든 서류와 설교 (CD또는DVD 또는 USB)를 빌립보 장로교회 청빙위원회(아래의 주소)로 우편 (USPS)으로 보낼것
2. 지원 서류와 설교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3. 청빙이 되신 목사님께서는 개별적으로 통보함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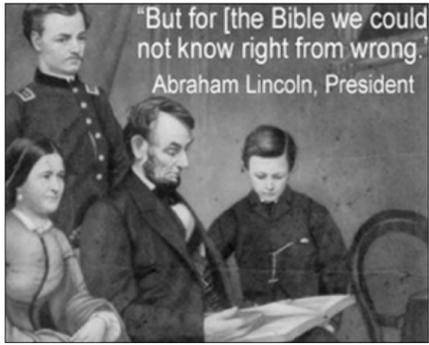
Korean Philippi Presbyterian Church
Pastor Invitation Committee
1969 E. Touhy Ave, Des Plaines, IL 60018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사회정의에 대한 정당들의 역사속 대립구도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상)

캘리포니아에서는 6월 5일에 있을 예비선거와 11월에 있을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 나라를 대표하는 정당들인 민주당과 공화당의 사회정의에 대한 역사속 대립구도를 크리스천의 시각으로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미국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 역사하셨는지, 동시에 악의 세력은 어떤 경로를 통해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거부하며 배척하고 사악한 영향력을 휘둘러왔는지, 지나온 역사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떨어지게 할 것이다. 죄는 당신을 성경으로부터 떨어지게 할 것이다" -드와이트 무디

의 올바른 미국 역사의식은 중요합니다.

미국을 만든 대 역사적 사건들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시절, 영국의 법에 따라 노예 제도는 미국의

13개 Colony(식민지)에서 합법적이었으나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복음주의의 기독교인들과 깊은 대립구도를 형성하는 사회적 안전이었습니다. 17세기에 들어서서 복음주의의 개신교에서는 노예제도는 성경에 어긋난다고 규탄하고 나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세기에 들어서 노예의 수는 6백만 명에 달했습니다.

미국이 영국식민지 아래 있으면서 1730-40년대에 일으켰던 첫 번째 신앙부흥운동으로 알려졌던 First Great Awakening의 주된 안전군 하나도 노예제도 폐지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 노예해방을 위해 싸우던 사람들이 1775년에 영국을 상대로 미국 독립 전쟁(American Revolution War)을 일으켰었고 그 전쟁은 8년간 지속되었습니다. 1776년 7월 2일 결국 국회는 미국 독립 선언서를 작성하고 7월 4일(Declaration of Independence) 미국 독립일을 선포하며 "all men are created equal"라는 선포와 함께 United States of America라는 미국의 거대한 탄생이 시작됩니다.

미국 독립혁명이 끝남과 동시에 영국에서부터 노예해방을 위해 싸우던 기독교인들에 의해 펜실베이니아주가 제일 먼저 노예제도를 폐지시키고 뒤따라 대부분의 북미주에서는 노예제도 폐지법을 통과시켰고 1808년에 미국 제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 정권아래 노예수

입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1854년에 캔사스-네브라스카 법안(Kansas-Nebraska Act)을 민주당에서 제출하고 통과 시킴으로서 노예판매를 그나마 금지시켜주던 미주리 타협이라는 법안(Missouri Compromise)이 무효화 되면서 노예반입 및 노예매매는 다시 허가가 되고 결국 미주리 타협법안이 무효화 된 것이 나중에 남북전쟁으로 이어졌다는 역사가들의 기록도 있지요.

두 정당의 사회정의: 최초의 "공화당" 결성 이유, 최초의 인권 운동-노예제도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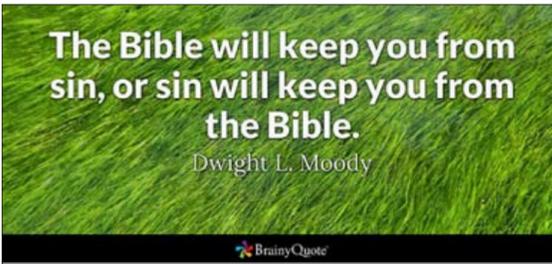
이에 맞서, 노예제도를 반대하던 복음주의의 기독교 운동가들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새로운 당을 결성하는데 바로 지금의 공화당입니다. 오래전부터 Free State으로 불리며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힘쓰던 사람들은 공화당을 결성하여 정식으로 미국의 정치적 위치에서 노예제도를 위한 법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노예해방의 기나긴 남북과의 씨름가운데 1861년에 첫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이 탄생되는데 그가 바로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탄생과 공화당 대통령의 길은 평탄하지 않았습니.

1861년 노예제도를 허용하는 주들을 "민주당 주" 또는 Confederate States-South 미남부 지역이라고 불렀는데 "민주당 주"들은 남부 연방을 결성하여 자유주들(Free States-North)로 불리던 "공화당 주"들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고, 이 전쟁은 중요한 Civil War-미국 남북전쟁이 됩니다.

흑인들의 해방과 인권을 위해 영국 시절부터 싸우던 복음주의의 기독교인들이 목숨 바쳐 싸우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먼저 두 가지 사실 기억하기

1. 크리스천들은 우선 민주당이나 공화당, 혹은 독립당도 아닌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통찰력 있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천의 책임인 투표를 행사할 때 어떤 정당이나 입후보자를 선택해야한다면, 당연히 좀 더 하나님 편에 선, 성경적 가치관을 좀 더 가깝게 따르는 당 또는 입후보자를 지지하는 게 마땅한 태도라고 볼 수 있겠지요(갈2:20).

2.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잘 먹고 편하게 살기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성경의 명백한 지상명령과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매우 다름을 인식하고 삶의 목적과 목표의 방향부터 올바르게 잡아야 한다면, 그 일부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마6:33, 마5:13-16, 롬12:1-2).

왜냐하면 인간의 행복치수는 "소유와 권리"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행복한 사명을 품고 즐겁게 살아갈 능력을 받을 뿐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자연을 포함하여)이 평탄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빛과 소금의 사명, 하나님의 법과 정의를 최우선순위로 삼는 사명과 임무는 지킬수록 모두가 행복해지고, 지키지 않을수록 나쁜 아니라 내 주위 가정, 사회, 국가까지 심각하게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림: "성경이 당신을 죄로부터

올바른 역사학의 중요성과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지키기

올바른 역사학, 너무 중요하고 꼭 지켜야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역사를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통치자로 삼은 미국의 역사 속에서 말씀에 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법-인간의 권력과 욕심"보다 더 중요시 여기려는 피나는 노력과 치열한 영적 전쟁, 심지어는 육체적인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바로 2018년 5월 지금도 미국과 한국, 온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치러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용사들은 힘차게 일어나 기도와 믿음의 행동을 취해야 할 긴급한 때입니다. 무엇보다 천사로 가장하여 "귀를 간지럽히는" 달콤한 언어들로 크리스천들의 마음까지도 미혹하고 사탄의 것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짓의 영을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모든 것을 법(악한 법안, 성경적인 법안)으로 통하는 나라에서 악의 세력이 원하는 정책/악한법안들이 더 이상 뿌리박지 못하도록 크리스천들이 함께 힘써야하며 한발자국 더 나아가 성경적인 법안들과 정책들이 지금처럼 계속 회복되어 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지금 공립학교들은 물론이고 자유진보주의 주류 미디어와 특별히 주류 대학 안에서 미국의 역사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잘못된 역사 정보들이 우리 자녀들을 세뇌시키고자 하며 잘못된 "사회정의"에 가입하는 청소년/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 어른, 교역자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 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믿음을 키우는 성도입니다. 로마가 초대 기독교회를 250년 이상 핍박하다가 주후 313년 밀라노 칙령이후로 기독교의 예배와 신앙 자유를 선포하고 아예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랬으면 로마가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더욱 흥통해야 할 텐데 하나님을 잘 믿는 로마가 어떻게 여처구니없이 야만족들에게 망할 수 있었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팔로스 버디스 Sam Lee

A: 좋은 질문입니다. 로마가 약 250-300년 이상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콘스탄틴 대제가 주후 313년에 기독교의 예배 자유, 신앙의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밀라노 칙령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그 후로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랬으면 더 로마가 강해지고 흥통했어야 했겠지요. 그런데 100년도 못가서 망해버리고만 것입니다. 주후 410년 8월 24일, 로마는 알라릭(Alaric)의 영도 하에 도끼를 휘두르면서 별거벗은 채로 쳐 들어오는 무식한 야만인 "고트족"에 의해 여처구니

로마제국의 멸망은 부도덕과 불신앙 때문...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엄연히 달라

없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문명사회를 매우 당혹케 하고 깊은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사건입니다. 불붙는 화염 속에서 거대한 로마성이 무너지는 순간에 이교도들은 조롱하였습니다.

이교도들은 로마가 멸망한 원인을 로마가 100년 전부터 오래 동안 섬겨오던 다신론적인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 소위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기 때문이라며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 로마 쇠망사의 저자이기도한 에드워드 기번조차 "기독교가 로마를 멸망케 한 주범"으로 몰았습니. 그래서 그 당시 기호의 주교였던 어거스틴은 이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성"을 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주후 413년부터 426년까지 13년간 하나님의 도성을 집필하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신성로마제국은 절대로 멸망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실 로마의 함락은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도 역시 엄청난 의문이요 도전이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성로마제국이 저 멸시했던 야만인들에게 이토록 처참하게 짓밟히고 무너지게 되었는가?"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재난을 허용하셨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으로 "신의 도성"에서 말합니다.

"로마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로마의 부도덕과 불신앙 때문이다. 사람이 세운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무너진다. 그러나 그 나라가 무너지면서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간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답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무너지는 로마 속에서 건설되어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 변증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국제질서도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혼돈과 무질서로 파괴되는 카오스의 상태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나라는 일어나 흥하기도 하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나 한국이나 우리가 사는 이 미국도 급변하는 역사 속에서 언젠가는 흥하다가 쇠하다가를 반복하다가 사라질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이 세상은 음녀요 바벨론으로 언젠가는 하루 만에 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세상 나라의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에서 강조하는 것은 "거듭난 성도들이 속한 나라는 결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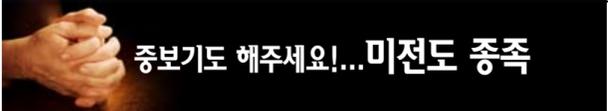
강사: 라흥채 목사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도서주문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중국의 하니(HANI)



1백30만 명 이상의 하니족들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의 국경을 따라 중국 남쪽 윈난(Yunnan) 성 지방에 거주한다. 비록 이 산지 부족의 정확한 기원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그들의 유목민 조상들은 북쪽 평원에서 멀리 떨어진 남쪽으로 점차 이주하였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언어가 티베트-버마어(Tibeto-Burmese)군에 속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하니족이 티베트에서 발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니족은 숲으로 둘러싸인 산들과 풍부한 강우와 비옥한 대지에 거주한다. 하니족 농부들은 가파른 산기슭을 따라 계단식 밭을 이룬 것으로 유명하다. 그들의 소규모 농업 촌락에는 대개 30-40가구가 모여 있다.

하니족은 수세기 동안 고산지역에 격리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으로 뒤떨어져 있다. 그들의 모국어인 하니어에는 10개의 방언이 함께 통용되긴 했지만 1949년까지 문자를 가지지 못했다.

삶의 모습

하니족에게 가족은 가장 유익한 집단이다. 그러나 여러 면에서 지역적인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서는 일부일처가 법으로 돼 있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는 일부다처가 행해지기도 한다. "가계(family order)"는 가부장적이며 부계 즉 모든 남아(male babies)들은 아버지 혈통의 일부가 되는 반면, 여자들은 그저 남편의 일부로 속하게 된다. 남자 아이들은 그들 아버지의 이름과 연관이 있는 이름들이 지어지지만 여자들은 그렇지 않다.

하니족은 거짓 없고 신실하며 친절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 손님이 방문하면 하니족은 와인과 진한 차를 대접하는데, 이때 만약 손님이 그 대접한 것을 거절한다면 이는 주인에 대한 큰 결례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그 접대에 잘 응하면 그 집주인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상으로 융숭하게 손님을 대접할 것이다.

하니족은 매년 여러 개의 대형 축제를 벌이는데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새해 축제다. 이 일주일 동안의 행사는 10번째 달인 추수기 동안에 행해진다. 새해 첫날 정오가 되면 행사 진행자가 검은 쌀로 된 3개의 공들을 뒤로 던지면서 지난해에게 작별을 고한다. 그리고 나서 다시 흰쌀로 만들어진 3개의 공들을 앞에서 던지면서 새로운 해를 환영한다.

다음으로 특별한 그네타기를 위한 밧줄에 힘을 실는다. 그리고 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네타기를 시작한다(그들은 이것이 재앙을 털어내고 번영의 해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그날 저녁 동네사람들은 모닥불 주위에서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춘다. 한 밤중이 되면 그 진행자가 축제를 끝내고 새로운 업무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그네의 틀을 자른다. 축제기간 동안 하니족은 푸른색이나 검은 빛깔의 옷감과 염색 천

으로 만들어져 눈길을 끄는 수제품 전통의상을 입는다. 남자는 특이한 자켓과 티셔츠를 입는 반면, 여자는 민소매 블라우스에 특이한 모자를 쓴다.

신앙

전통적으로 하니족들의 신앙은 토속신앙과 다신교, 조상숭배의 복합적인 형태를 띠었다. "거룩한 산들(holy hills)"에 있는 나무들을 그들의 수호신으로 믿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여전히 유사한 신앙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매우 미신적이며 쌍둥이나 장애아의 출생과 같은 특정한 사건들을 불행해지는 것으로 여긴다. 따라서 이런 어린이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부모들은 추방당하며 그들의 집이나 소유를 불태워버린다. 그들은 하늘과 땅위의 존재하는 신들, 마을들을 보호하는 신들, 질병을 가져오는 악한 신들과 같은 자신

들의 삶을 지배하는 많은 신들을 믿는다.

하니족은 3명의 주요 종교적 성직자를 주시한다. '주이마(zuima)'는 모든 종교적 활동을 총괄하는 최고 연장자 격의 가정에 속한 남자이다. '베이마(beiima)'는 마술과 축기(귀신을 쫓아내기)를 행하는 남자들이다. 남자와 여자 '니마(nima)'는 예언을 하며 악재들을 관찰하는 임무가 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중국정부가 엄격하게 기독교를 금지한 이후, 현재 하니족 가운데 하나의 선교단체가 일하고 있다. 성경과 영화'예수'는 아직 하니어로 번역되지 않았고, 기독교방송이 아직 그들 지역에 없다.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하니족은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어볼 기회가 거의 없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갈등...선교지 테러 위험 증가

본격적인 해외 단기선교 시즌을 앞둔 가운데 '안전 선교 활동'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최근 주이스라엘 미국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이전되고 이슬람 금식월인 라마단까지 맞물렸기 때문이다. 갈수록 거세지는 중국 정부의 교회 탄압도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한국외국관계재단(이사장 김복권)은 21일 "미국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으로 미국과 친서방 국가들에 대한 테러나 폭력사태 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교회 성지순례 방문시 주의가 요청된다"고 밝혔다. 또 "다음 달 14일까지 라마단이 이어지면 중동·북아프리카 등 전 세계 교회와 기독교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이슬람 극단 테러단체의 공격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인도네시아 제2의 도시 수라바야의 교회와 성당 등 3곳에서 연쇄 폭탄테러가 발생해 13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했다. 피해 교회는 그레자 크리스천 인도네시아교회(GKI 교단), 펜타코스트교회(오순절 교단), 산타마리아 성당이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테러 단체들은 교회나 성당, 경찰서, 서방국가 대사관, 호텔, 쇼핑몰 등 도시의 주요 시설물을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마단 기간에는 이슬람국가(IS)와 같은 극단주의 조직의 테러가 빈번해지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극단주의 이슬람이 금식 성월에 순교(테러조직의 자살 폭탄테러)하면 더 많은 축복을 받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한국외국관계재단은 단기선교를 준비하는 각 선교단체와 지역교회를 향해 현지법 준수, 관습·문화 존중, 여행금지국가 방문 언급, 자체 안전대책 마련 등을 당부했다. 선교교육 단계인 미션파트너스(상임위원장 한철호)도 이날 '단기선교여행을 위한 10가지 지침'(표 참조)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의 기독교 탄압도 거세지고 있다. 선교사들의 추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 공산당이 전국의 교회와 교회 후원 시설을 폐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쓰촨성 남서부 지역에선 기독교인이 대거 구금됐다. 이들은 쓰촨성 대지진 10주기 기념식에 참석하려던 신자들이었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9일 "대지진으로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고자 모인 기념식 참가자들을 체포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며 "종교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리노이주, 사형제 폐지 8년 만에 부활 모색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8년 전 공식 폐지된 사형제도 부활 여부를 놓고 찬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16일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브루스 라우너 일리노이 주지사(61·공화)는 "총기 난사범과 경찰 대상 총격범 등 극단적 범죄자들은 삶을 영위할 자격이 없다"면서 주의회가 추진 중인 총기규제 강화법안에 사형제 복원 내용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 곳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고, 지난 2월에는 시카고 도심 광서 앞에서 31년 경력의 고위급 경찰 간부가 강도 용의자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후 일리노이 주의회는 총기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소총 또는 산탄총 소지를 위한 대기 시간을 24시간에서 72시간으로 늘리고, 법원에 위험인물의 총기를 압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라우너 주지사는 "어떠한 의심도 없이 혐의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을 때"(proof beyond all doubt)에 한해 배심원단이 사형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일반적으로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에 필요한 조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때"(proof beyond a reasonable doubt) 보다 높은 기준이다.

라우너 주지사는 "이같은 조건이 무고한 사형수가 나오지 않을가 하는데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줄 것"이라며 "현행법 또는 복수의 목격자가 있는데도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DC 소재 '미국 사형정보센터'(DPIC) 로버트 던햄 사무총장은 "일리노이 주에서 경찰의 강압에 의해 용의자가 허위 자백을 하거나 목격자가 증언을 철회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며 "어떠한 의심도 없이"라는 조건도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리노이 사형제도 역사 자체가 사형 선고가 얼마나 임의적이고 신뢰하기 어려운지, 사법 당국의 부정행위가 얼마나 취약한 지 보여주고 있다"면서 "철저한 공개 토론과 공청회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라우너 주지사의 추가 발의로 법안은 주하원으로 되돌아갔다. 라우너 주지사의 제안이 입법화 되기 위해서는 주의회가 우선 법안 수정을 승인해야 한다.

일리노이 민주당 측은 "사형제도가 특정한 어떤 사건을 위한 정치적 도구가 돼서는 안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존 켈러튼 주상원의장은 "여러가지 폐단을 겪고 어렵사리 제도를 폐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리노이 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1999년, 2011년에는 사형제가 공식 폐지됐다.

일리노이 주는 미국 연방정부가 1972년 사형제도를 폐지했다가 1976년 제도입한 이후 약 20년간 12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그러나 13명의 사형수가 무죄 석방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2000년 조지 라이언 당시 주지사(공화)가 사형제 유예를 선언하고 사형 집행을 잠정 중단시켰으며, 10년여에 걸친 논란 끝에 2011년 사형제 폐지법을 승인·발효했다.

현재 미국 연방 정부와 31개 주에서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19개 주와 워싱턴DC에는 사형제도가 없다.

올해 미 학교 사망자, 복무 중 숨진 군인보다 많아

미국 텍사스 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18일 또다시 총기 참극이 발생한 가운데 올해 들어 미국 내 학교에서 숨진 사람이 복무 중 사망한 군인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워싱턴포스트가 이날 사고 직후 사망자가 8명으로 집계됐을 때 국방부 자료와 비교한 통계이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학교에서 숨진 사람은 모두 29명이고, 같은 기간 헬기 추락 등으로 숨진 복무 중 사망 군인은 13명이다. 올해 학교에서 숨진 사람이 군 복무 중 목숨을 잃은 군인보다 2배 이상 많은 셈이다.

오후 집계에서 산타페 총격 사망자 숫자가 최소 10명으로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교내 사망자 숫자는 31명까지 올라간다. 이들의 대부분은 학생이다. 2000년부터 18년간 교내 사망자 수인 36명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번 참극은 불과 석 달여 사이에 일어난 두 번째 총기사고다. 지난 2월 14일 플로리다 주 파크랜드의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에서는 교내 총기 난사로 17명이 숨졌다. 다만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초·중·고교 학생(5천만 명)이 군인(130만 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점 등을 들어 "학교가 전투 지역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 시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한 미대사에 강경파 해리스 공식지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년4개월째 공식 중인 주한 미국대사에 대북·대중 강경파인 해리 해리스(62·사진)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을 공식 지명했다고

백악관이 18일 발표했다.



해리스는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호주대사에 지명됐으나, 미 상원 청문회 직전 취소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 내정자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대사 자리부터 채우는 게 시급하다고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백악관은 해리스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폭넓은 지식과 리더십, 지정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뛰어난 인재로 전투력이 입증된 해군 장성"이라고 설명했다.

해리스는 대북 강경파로 분류된다. 그는 호주대사 지명 뒤 상·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백역공세'라고 평가절하했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만 승리의 춤을 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북·미 정상회담 전 상원 인준을 통과하지 불분명하지만 대사 지명자 신분으로 북한 정세 판단과 조언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리스는 주일미군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해군 참모장장, 유류담당 6함대 사령관 등을 거쳐 2015년 주한미군사령부를 휘하에 둔 태평양사령관에 취임했다. 아버지가 한국군 참전용사 출신이다.

'6·12 북·미회담' 취소 임포 의도·배경 분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을 취소할 수 있다는 북한의 임포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회담 개최에 희망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평생을 깨면 '최대의 압박' 카드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경고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6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우리는 여전히 회담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그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 일이 힘든 협상이 될 것으로 보고 준비해 왔다"며 "회담을 취소할 수 있다는 북한의 위협은 우리가 전적으로 예상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샌더스는 "만약 그들(북한)이 만나길 원한다면 우리는 준비가 돼 있을 것이고 그들이 회담을 철회한다면 그래도 좋다(It's Okay)"며 회담이 열리지 않을 경우 북한에 최고 수준의 제재를 계속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일단 북한의 임포가 관을 깨는 것이라기 보다는 협상용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방부는 조선중앙통신 보도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문 발표를 접한 뒤 잇따라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북한의 발언 의도가 정상회담을 취소하기보다 비핵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신경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정상회담 취소나 연기를 통보하기 전에는 예정대로 회담을 추진할 것이라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으로부터 어떤 공식적인 통보도 받은 바가 없다며 "다음 달로 예정된 정상회담을 계획대로 진척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의회와 전문가들은 북·미 회담의 성과가 불투명해졌으며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조심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생겼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끼에 걸려들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공화당의 렌드 폴 상원의원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전개하지 않는 게 미국의 선의를 보여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북한이 미국의 허를 찔렀다"면서 "북한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일이 싱가포르 회담 무산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도로 위의 요철 같은 '작은 마찰' 정도로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테스트해 보려는 목적인 것 같다"고 전했다.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선임연구원은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처럼 협상이 마음에 안 들면 회담장을 박차고 나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잠재적 표지를 깔아놓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한 내부에 강경파 간 대립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북한 군부 내 강경파가 갑작스러운 비핵화 대화에 불안해하면서 현재의 외교적 교섭을 방해하려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마음 변한 것 없다" ... 회의론 일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심 끝에 북·미 정상회담을 예정대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장관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백악관은 북·미 정상회담을 기념하는 주화를 제작해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에 나서더라도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받아내지 못하면 결렬을 선언할 수 있다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 중 정상회담 성사에 가장 적극적인 사람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다. 김 위원장을 두 차례 직접 만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그는 21일 "우리가 김 위원장을 만나려는 의지는 가장 완강한 적이 가장 큰 도전조차 밀고 해결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약속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는 보수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에서 '이란 핵합의 폐기 이후'를 주제로 연설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폼페이오는 그러나 "그런 의지에 고통스러운 압박 캠페인이 따르는 것은 이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려는 우리의 책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해 비핵화 전에 제재 완화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더 분명하게 말했다. 므누신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것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며 "북·미 정상회담은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변화가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강행 결심을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는 백악관이 제작한 트럼프-김정은 회담 기념주화다. 백악관은 정상회담을 기념하는 주화 250개를 제작해 이를 공개했다고 UPI통신이 보도했다. 기념주화 앞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마주보는 옆모습이 새겨져 있다. 두 사람의 배경에는 각각 섬조각과 인공기가 그려져 있으며 '미합중국 대통령 트럼프'와 '최고지도자 김정은'이라는 호칭이 쓰여 있다. 가장자리에는 한글과 영어로 '평화회담' 'PEACE TALK'라는 글도 들어가 있다. 뒷면은 백악관과 미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으로 장식돼 있다.

백악관은 과거에도 외국 정상과 회담을 할 때 기념주화를 만든 적이 있다. 하지만 회담 개최 전에 주화를 공개한 것은 선급하고, 김 위원장을 '최고지도자'로 호칭한 것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에 들어가 김 위원장을 만나더라도 비핵화 로드맵을 비롯한 뚜렷한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면 결렬을 선언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만일 김 위원장이 장난을 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장을 걸어 나갈 것"이라며 "협상이 결렬되면 북한은 리비아 꼴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핵무기 반출과 사찰 등 검증 일정 등에 합의하지 않으면 리비아의 지도자 무아마르 카다피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51. 한승곤(1881-1947)

한승곤은 1881년 1월 28일 평양에서 출생했다. 평양 장대현교회가 C. F. 반하이젤 목사로 하여금 1906년 1월에 평양 제4교회인 산정현교회를 설립할 때 한승곤은 계택선, 이덕환, 최정서, 김용흥, 정이도 등과 함께 개척 멤버가 된다. 그 후 그는 초대 교사가 되더니 1908년 1월 장로로 장립했다. 그는 평양 부흥운동이 한창이던 1907년에 평양 숭실학교를 졸업한 후 1912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면서 반하이젤 선교사를 이어 산정현교회 제 2대 담임목사로 취임하였다. 그는 주일학교에 힘쓰며, 국문점경 등 국어에 관한 4권의 책과 '성신중만', '신약전서대지', '바울행적공부' 등 세 권의 기독교 서적 등 총 일곱 권의 책을 펴내 문헌선교에 한 업적을 이루여 왔다.

나성

1916년 3월 한승곤 목사는 평양 산정현교회를 사임하고 도미한다. 상황에 안착한 그가 그해 12월에 대한인국민회 다뉴바 지방회 학무원으로 피선된 것으로 보아 상황을 거쳐 다뉴바로 이주한 것이 맞다. 그가 나성으로 이주하기는 나성성경학원에 입학한 1917년 가을 이전이다. 그의 미주 내 첫 사역은 북미한인교회공의회가 1917년 12월에 조직될 때 서기가 되고 북미한인교회의 간행에서다. 나성 한인복음청년회는 그의 두 번째 사역이 된다. 1918년 본 청년회가 개최한 특별토론회에서 "모범적 인물은 그 인격에 있지 않고 학식에 있음"에 대하여 부편에서 토론을 하였다. 이날 가편은 홍치범 목사가 담당했다. 같은 해 이 용직, 백성빈, 조성환, 차의석 등과 함께 3달러 의연자 100명을 모집

하는 원동선교회 조직은 그의 세 번째 사역이다. 본 선교회는 선교사 한 사람을 원동에 파견하고 재정과 선교사 책정은 본국 장감연합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한승곤은 민족 운동에도 활발했

다. 그는 가옥 은행채보상 운동 발기자와 대한인국민회 나성지방회 학무로 활동했고, 국민의무금과 신한민보 식자기계체정장 의연금을 냈다.

다뉴바 한인장로교회

한승곤은 1918년 10월 이전에 다시 다뉴바로 이주하고 다뉴바 한인교회를 섬긴다. 북미한인교회 사역은 계속되었는데 공의회 회장 민찬호와 함께 서기 한승곤은 1919년 신한민보에 기고한 '독립 위하여 기도'라는 글에서 매일 아침 6시, 정오 12시, 저녁 7시에 30분 이상 기도하기를 선포했다. 기도 제목은 독립운동에 희생된 동포, 감옥에 갇혀 고생하는 동포, 우리 운동에 힘쓰는 동포 그리고 세계 평화였다. 특별히 4월 11일을 독립기념일로 정하고 예배당이나 기타 장소에서 모여 기도하라고 요청했다. 그해 5월과 6월에 그는 회장 민찬호와 재무 이대위와 함께 북미

총회 한인교회 공의회 의 명의로 신한민보에 "구제합시다"를 게재하고 삼일운동에 희생되고 옥고를 치르는 가족을 돕자고 호소했다.

산 안셀모 장로교 신학교에서 청강했던 1919년 봄 한승곤 등이 조직한 '미주한인학생 원동선교회'는 회원의 수가 130명에 달했고 그해 2월에 200달러를 국내 장감협의회에 보냈으며, 삼일운동과 관련한 영문 편지 5,000장을 미국 내 각처 선교회와 예배당과 청년회와 대학교와 신학교와 및 종교단체로 보내어 동정을 구하며 한국과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를 청원하였다. 그해 5월 그는 본 선교회의 자주 지방위원으로 선정되었다.

한승곤의 동포 사랑과 독립운동은 계속된다. 그는 국민회 다뉴바 지방회의 대의원, 다뉴바 대한인한국학교 교장 등을 역임했고, 최능이, 김창민, 신영철 등과 함께 영어숙성과 강습소를 11월부터 개학했으며, 의무금은 물론 김석길의 병원비, 고 이경의 장례비, 김윤원의 가족 구휼금, 적십자회금 그리고 성탄구제금을 기부했다.

영수와 함께 교회를 섬겼다.

나성한인감리교회

1926년 8월 상황에서 모인 미국 남감리교 연회는 힐 스트리트에서 모이는 한인자유교회의 한승곤 등 3인이 작성한 청원서를 받아들여 다음 달 12일 주일 오전 9시 50분



한승곤

에 새로 임대한 예배당 사무실에 새 감회사 데이비스 목사와 임정구 목사와 위원들이 나성한인 남감리교회 조직에 대하여 12시 30

이 교회 처소로 인하여 유익이 많으리라"고 적었다. 1927년 한승곤이 시카고로 떠나면서 황사용 목사가 그 뒤를 이었다.

한승곤의 민족 사랑은 국민회, 흥사단, 여성여자에국단 등에서 나타났고, 의무금, 인구세, 수재구제금 등을 흔쾌히 냈던 것은 그의 민족 사랑에서였다.

시카고 한인감리교회

1927년 12월 2일 한승곤은 시카고에 도착했다. 시카고 한인감리교회 영점위원 영광섭, 김일선, 강영소, 량재형 등과 다수 동포가 환영하였다. 이튿날 하오 6시에 화영투에서의 성대한 만찬회 후, 밤 8시에 예배당에서 환영회를 열었다. 이병두의 간곡한 기도에 167장 찬송을 합창하였고, 사회자 영광섭의 간단한 개회사, 손진실의 정례회 독창, 시카고 각 단체의 환영사, 애국가 합창, 노준택의 경건한 기도 후에 첫 줄에서부터 한 명씩 차례로 나와 한승곤의 손을 잡았다.

한승곤이 시카고에 도착한 지 이틀 후 영광섭, 강영소, 김 경, 양재형, 마춘보, 이상진 및 이병두를

그 후 본 교회는 한승곤 등 위의 4명과 하희옥, 임 조, 이재원, 한 장호, 이병두 등을 이사원으로 선정하였다. 그해 7월 시카고 교회는 한승곤을 본 교회 목사로 다시 피택 한다.

1935년 8월 4일 시내 공원에서 조승학의 송별회 겸 한승곤 취임 환영회를 피크닉으로 가진 가운데 이케리의 정성으로 점심과 저녁이 풍성했다. 다음 해 1월 12일 하오 4시 본 교회에서 한승곤의 사회로 영계 길선주 목사의 추도식이 거행되었는데 이수산의 나의 추도가, 이은택의 기도, 한승곤의 길목사 약력담, 교회 대표 최능익과 학생회 대표 이용택의 추도사, 고인의 영에 길선주의 애사, 여러분의 소감 그리고 한승곤의 기도로 끝을 맺었다.

다음 달 정가월례회는 그달 9일 주일을 자급 연보의 날로 정하고, 본 교회를 지역 사회에 알리는 목적으로 미국인 교회와 교제하고 교회 내적으로는 주일학교를 확장키로 했다.

흥사단 대표로 선임되고, 언론 첨경을 펴내며, 고 이대위 목사 장례비를 기부하고, 인구세를 납부하는 등 한승곤의 나라 사랑은 시카고에서도 식지 않았다.

건국훈장 애족장

한승곤은 1936년 5월 국민회에 참석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재정후원과 항일독립운동 세력 규합 등의 문제를 논의한 후 귀국한다. 그는 동우회를 결성하고 독립운동을 추진하다가 1937년 일경에 피체된 후 1940년 8개월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1941년 10월 무죄판결이 나서 석방됐다.

한승곤은 1947년에 향년 66세로 소천하였다. 1936년 12월 평양에서 그의 부인이 별세한 지 11년이 되던 해다. 그들은 미국에서 유학한 장남 세광과 숙희, 정희 그리고 덕희 등 1남 3녀를 남겨 두었다. 한국 정부는 1993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여 그의 나라 사랑을 확인했다.

damien,sohn@gmail.com

평양신학교 졸업후 산정현교회 제 2대 담임목사로 취임

1916년 도미, 동포사랑 독립운동 계속...한인교회 담임

1936년 귀국 1937년 체포됐다 1941년 무죄판결 석방

한인자유교회

한승곤은 1921년 자주 다뉴바에서 뉴저지 주 프린스턴신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출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런데 2년 후 1923년 5월에 그가 캔터키 주 밴드빌트 대학에서 신학사로 졸업한다.

1921년 특별외교비 의연금을 기증하고, 뉴욕에서 동양 미술점을 하는 정인수와 상해에서 도미한 우일리스와의 결혼식이 1922년 10월에 프린스턴에서 있을 때 주례를 담당하는 등 분주한 학업에도 그의 동포 사랑과 독립운동은 계속되었다.

1923년 8월에 한승곤은 파사데나의 차정석과 합자로 나성에 체소 상일리스를 열기로 보도된 것으로 보아 그가 나성으로 이주한 것이 맞다. 이듬 해 10월 나성한인장로교회에 출석하던 교인 일부가 따로 버드롱 스트리트의 건물에서 한인자유교회를 조직하고 한승곤이 본 교회를 섬긴다. 종종 파란이 있었으나 1926년, 한승곤은 재무 겸 서기 황성택, 대의원 김성권과 이

분이 되도록 토의했다.

오후 3시에 감회사의 설교와 찬양대 찬양과 최련실의 '나 행한 것' 독창 등으로 예배를 본 후 교인 연명으로 교회가 조직됐다. 담임목사에 한승곤이 지명되고, 서기에 김관유, 유사에 김성권, 황성택, 장재형 그리고 이영수가 선택되고, 주일학교 교장에 박경신이 선정되고, 평신도 대표에 한승곤이 지명된 임정수가 맡았다.

1927년 5월에 나성 남감리교회로 불렸던 나성한인감리교회는 한인 30여 호가 모여 사는 웨스트 37 스트리트 1548번지의 주택으로 옮겼다. 주일에는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다른 날은 국어학교와 밤에는 동포들의 친목 공간으로 이용했다. 3, 40명이 국어학교에 등록했다. 건물관리인에 황성택과 최능익 그리고 심방하는 권철에 박경신과 이성례가 선정되었다.

신한민보는 "불과 3, 4 불락 사이를 두고 30여 호가 모여 사는 것 처럼이고, 그 중앙에 예배당 겸 학교 또 친목 공간을 마련함도 씩 아름다운 일인데. 나성한인들은

내년도 이사원으로 선출하고, 이듬해 9월에는 옥테일 애비뉴 826번지로 예배당을 이전한다.

지난 1년간 여러 난관의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하여 신앙이 두터웠던 한승곤은 개인 사정으로 1928년 10월 본 교회를 사임했다. 본 교회는 섬설했으나 교회 사역을 일층 더 확장키로 한다. 이후 장세운, 김인준, 갈홍기, 조성학 등이 그의 뒤를 이었다. 1935년 5월 조목사가 사임하자 본 교회 이사회는 한승곤, 강영승, 조승학 그리고 장세운으로 4인 전도부를 조직하여 교회 사무를 관리토록 하였고,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 ✓ 현수막 | 천막
-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 프로모션 상품
-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리더십 코멘터리 (65)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강철 멘탈로 위기를 극복하는 리더가 되라

건강한 자존감을 가져라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이다. 자아존중감이 있는 사람은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할 수 있고,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된 사람은 자아존중감을 가질 수 있다.

리더는 누구보다 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만큼 책임을 맡은 리더들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절대적이다. 그렇다면 자존감이란 무엇일까? 자존감은 자기 자신에게 부여하는 긍정적인 가치 즉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이다. 사람들은 두 가지 면에서 자신을 평가하는데, 첫째는 자기가치감(Self-Worth)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다. 당신은 존경받는 유능한 리더인가? 건강한 자아존중감을 가진 리더가 되라.

마음에 품은 이미지 이상으로 성공할 수 없다

인생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외모나 재능 또는 물질적 소유가 아니라 왜곡된 자아상 때문이다. 자신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느끼는지에 따라 성공의 크기가,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성공의 여부가 판가름 난다. 자아상은 자신을 스스로 그린 일종의 자화상(Self-Portrait)이다.

당신은 자신을 어떤 리더라고 생각하는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건강한 자아상은 결실과 평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다. 자기개념이 그렇게 중요한 까닭은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반응하기 때문이다.

심리학적 견해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자아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은 마음에 품은 이미지 이상으로 성공할 수 없다. "나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왜 하필 나

마주하는 도전에 맞서 기본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면 높은 자존감을 갖기는 어렵다.

성공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말로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아 도전한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커다란 결실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을 도전할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할까?

역사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던 탁월한 리더들을 연구해보면 그들의 정신력이 강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보통 사람이라면 크게 상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을 사건과 상황을 잘 버티어내고 이겨내었을 뿐 아니라 강력한 리더십으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가시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다.

자기 연민을 극복하는 리더가 되라. 인생은 자기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뜻하지 않은 여건과 환경이 주어지게 마련이다. 원하지 않았던 상황과 결과가 닥치면 사람은 자기연민에 빠지게 된다. 멘탈이 강한 리더는 자기연민에 오래 빠지지 않는다. 그것이 순간적으로 다가올 수는 있으나 이를 최대한 빠르게 물리치고 극복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리더가 되라. 모든 상황과 여건의 변화는 정신

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강한 멘탈이 실수를 통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멘탈이 약한 리더는 실수를 반복한다. 그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실수를 통제할 힘이 없는 것이다.

주변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는 리더가 되라. 동료나 승진을 하거나 친구가 이룩한 업적을 들으면 부러워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단순히 부러워하는 차원을 벗어나서 시기하고 분노한다면 이는 멘탈이 약한 리더이다. 멘탈이 강한 리더는 주변 사람의 성공에 분노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도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긍정적 자아상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인내하는 리더가 되라. 어떤 시든 노력에 대해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인내력의 부족을 의미한다. 성질이 급하고 가벼운 사람일수록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멘탈이 강한 리더는 어떤 노력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한다. 그래서 일의 결과를 인내하면서 기다린다. 비록 달팽이 걸음처럼 천천히 진행될 지라도 이를 간내하며 기다릴 줄 안다.

강철 멘탈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리더가 되라

지금은 우리 모두가 위기가운데 있

평생을 도전할 가치 있는 일 찾아 최선 다해 일하길 하나님께 근거된 자기 가치 발견만큼 성공할 수 있어

인 컬럼비아대학교의 2012년도의 졸업식에는 조금 특이한 인물이 한 명 끼여있었다. 조국인 유고슬라비아의 내전을 피해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12년 동안 청소년부를 하던 52세의 필리파 씨가 그 주인공이었다.

컬럼비아대학교는 직원들에게 무료로 수업을 제공하기 때문에 비록 청소년부라 하더라도 등록금 없이 대학의 모든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할 수 있었다.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는 전공인 고전문학에 대한 공부를 하는 생활을 매일같이 했지만 세계최고의 대학 중 하나인 컬럼비아대학교를 졸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12년 동안 필리파 씨는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 중 하나인 컬럼비아대학교를 당당하게 졸업하게 되었다.

영여조차 몰랐던 청소년 인필리파 씨가 이처럼 값진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힘든 과정을 12년 동안 지치지 않고 즐기던 끈기 때문이었다. 자기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 여기려고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자신이 삶에서

적 부담감을 유발한다. 낮은 사람과 상황에 처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원하지 않는 애로와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 멘탈이 약한 사람은 이런 부담감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런 저런 두려움을 유발한다. 그래서 이런 위험을 두려워한 나머지 상황 자체를 회피하고 외면하게 된다.

눈치를 보지 않는 리더가 되라. 눈치만 주변 사람들의 기분이나 태도를 살피는 것이기에 원래는 나쁜 것이 아니다. 눈치가 빠르다는 것은 상황 파악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적절한 대처능력의 전제조건이다. 문제는 건강하지 못한 눈치이다. 타인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결과로 눈치를 보게 된다. 이는 결코 건강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대등하게 여기지 못하는, 자존감의 결여로 인한 눈치는 병적인 것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리더가 되라. 멘탈이 강한 리더는 자기통제 능력이 높다. 그래서 실수를 잘하지 않는

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때이다.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 리더가 된다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근거된 자기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며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자기충만의 자리에 앉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렌즈를 통해 나를 보고, 타인을 보고, 환경을 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본다. 내 마음의 렌즈가 깨어 있지 않다면 굴절되어 있는 자신을 보는 시선부터 타인과 환경, 하나님에 대한 인식까지 깨어지고 굴절된 모습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리더들이 건강한 자존감 회복을 통해 자아정체감을 발견하고, 확장되고 성장한 자아를 통해 타인을 만나며, 궁극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관계인 하나님을 향한 영적 발돋움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소망한다. 강철 멘탈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삶의 놀라운 성취감을 맛보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리더가 되라.

sondongwon@gmail.com

영성칼럼



이희영 사모
(프린스턴한국인교회)

무엇을 물려주었나?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니라 하니라"(왕상14:16).

솔로몬 뒤를 이어받은 르호보암이 노련한 현자들을 물리고 헬기 방장한 친구들의 조언대로 아비는 채찍을 아들은 전갈을 백성에게 주려다 나라가 여로보암의 반란으로 남, 북으로 나뉘어지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 외 나머지 10지파는 북방 왕국 이스라엘이 되어 팽팽히 맞서고, 여로보암의 핍박으로 모든 제사장 무리가 유다로 모여 들고 후년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라가 안정되자 하나님을 배반하니 애굽이 쳐들어 왔다.

솔로몬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부와 권력을 소유하고도 모자라 과욕으로 그저 영토 확장에 눈이 어두워져 정략결혼으로 이방 공주들과 무분별하게 결혼하였다. 아마도 저는 지혜로운 자이기에 스스로가 하급의 이방 종교에 유혹을 받을 것은 꿈에도 생각 않고 스스로를 과신함에서 그녀들이 섬기는 각가지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도록 허락해주지 않았는가 싶다.

물이 조금 새기 시작할 때 무시하면 시멘트 한 줌이면 막을 수 있을 것을... 구멍이 커지기 시작하면 걷잡는다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가 있다. 타락적인 성의 향락에 빠져들다 종족의 수준이 되면 구제 불능이 된다. 그의 아내들은 왕비가 700에 접이 3000이 줄잡아도 1000명이다. 더구나 저들은 거의가 이쪽 왕녀들이다. 1000명의 왕비 중에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자 저들의 성 상남의 수준은 아마도 우리의 상상을 불허하는 왕비들 간에 극도로 문란한 아귀대툼이 없었겠는가?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만은 암몬족속이었다(룻과 작은 딸 사이의 자손들, 물욕을 섬기다).

르호보암이 자라며 무엇을 보았겠는가? 솔로몬이 초기에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 왕의 할 일이라 여겨 하나님께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구했던 것을 부왕에게서 제대로 전수받았으면 좋으련만... 말년에 넘치는 물질을 어찌지 못하여 상아로 왕좌를 만들고 금 방패를 만들어 장식하고 여색에 빠지는 왕으로서의 본분은 어떤 권리를 누리는 그 모습만을 가슴에 새겨서 백성은 왕의 종으로 바뀐 개념을 아들에게 물려준 셈이다. 결국 넘치는 부와 권력의 껍데기는 전해주었으나 국가의 공복으로서의 왕의 교육을 시켜주지 못했다. 말년에 주색에 빠져 아들 교육 따위가 무슨 안전에 있었겠는가?

결국 물려받은 껍데기에 힘이 있을 것으로 착각하여 현실파악을 못하고 칼을 잘못 빼드는 바람에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났다.

(10면으로 계속)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397-6754~5 군포시 금림동 870-10호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ran.org Tel: (82)2-43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화랑동 340-1(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항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금요침례: 오전 11:00, 7: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876(교육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새이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3:00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예배: 오전 6: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59-9999,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43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쉰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동 713-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이성준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사택: (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랑구 신사동 137번지	시온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수요예배: 오전 5:00(일-토) 새벽예배: 오전 5:00(일-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의왕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Tel: (82)2-842-1968, 사택: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박영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8191~3, (02)422-0751 서울시 중랑구 수유동 1721 2층(잠실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Tel: (82)2-3142-6080, Fax: (82)2-336-4188 서울 마포구 노고동 49-45 www.eschin.org	안암 제일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30 주일4부예배: 오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82)2-926-4508 서울시 용인시 용인읍 신사동 50-1 www.anamjil.or.kr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8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월영동 415 www.yangok.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 (02)842-6881, Fax: (02)8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10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482-3535,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23	창주성도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533 충북 영주시 용곡리 사평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시 이천동 302-67 (140-031)



목회서신

누가 성공자인가?



여승훈 목사

미국 국민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미국 국민들 가운데 누가라도 붙잡고 선생님은 트럼프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예, 잘 압니다. 그는 대통령입니다 라고 주저하지 않고 대답할 것이다. 이런 경우 안다는 것은 미디어를 통해서 접한 정보 지식으로 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고, 겪어본 적도 없고, 대화를 나눈 적도 없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일하는 존 켈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거의 매일 대화를 하고 식사를 같이 하며 정책에 관해서 토론을 하면서 지낸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실제적으로 겪으면서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할 때 안다는 것의 의미는 정보 지식적으로 안다는 의미

가 아니라 인격적인 체험으로 안다는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보 지식으로 안다는 것과 인격적 체험으로 안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세상에는 예수는 믿지 않는데 예수에 관해서 성경에 관해서 기독교에 관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경우는 예수에 대한 정보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지 예수를 인격적 체험으로 아는 것은 아니다. 믿음의 능력이 삶에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전혀 나타나지 않으므로 인하여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여러 가지 이유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보 지식 차원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정보 지식 차원으로만 알고 있을 때 믿음의 세계를 매우 피상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믿음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때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취약점 가운데 하나는 그를 인격적으로 체험하므로 깊이 알고자 하는 갈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기독교는 곧 생활이라는 뜻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교회생활을 어떻게 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봉사생활을 어떻게 하고, 삶의 생활을 어떻게 하고 등등 적어도 생활에 관해서는 매우 익숙한 편이다.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 했다고 이해를 한다. 이런 저런 기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주인에 대한 중이 가지는 태도이다. 좋은 주인이 요구하는 일을 잘 이행하면 된다. 좋은 주인과의 인격적인 사귀어 있는 것이 아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생활을 할 뿐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그리스도인들)을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닌 친구

관계로 받아주셨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요15:15). 예수님과 친구 관계가 된다는 것은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예수님과 친구 관계를 즐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 그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체험으로 알기 위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살펴보자.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빌3:5-7).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들의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는 훌륭한 가문의 배경과 종교적 배경을 가졌고 그의 종교적 열심은 매우 특별하였다. 이 모든 것들은 사도바울을 사회적으로 명성 있게 하는 매우 유익한 것들이었다. 바로 그런 유익한 것들을 해로 여긴다고 말한다.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말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체험으로 깊이 알기 위함이다. 그를 명성 있게 만들어주던 그의 뛰어난 배경들보다 더욱 뛰어난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전에는 자신을 명성 있게 만들어 주던 뛰어난 배경들이 곧 우상이었다. 그것을 의존하였고 그것 없이는 못할 것처럼 매어 달렸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탁월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내려놓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표현 가운데 '해로 여긴다'는 말을 주의 깊게 새겨 보라.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체험으로 깊이 알아가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 자신을 유익하게 해주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산다면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세월과 함께 해가 되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세상은 가진 소유와 배운 지식과 생활 능력 등으로 소위 '성공'이라는 타이틀을 올려놓는다. 그러나 '성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사도바울은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하였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결코 성공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참된 '성공'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므로 깊이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삶이다. 진정한 성공은 결코 돈과 관련된 것이 아니며 지식과 관련된 것이 아니며 능력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진정한 성공은 오직 한분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공자가 되기를 갈망해 보지 않겠는가?



뉴욕총신대학원 학위수여식을 마치고 교수와 졸업생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총신대학원 제 25회 학위수여식 첫 박사학위 배출...신학사 중 총 17명 학위 받아

뉴욕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총장 정익수 목사) 제 25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지난 20일 오후 6시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렸다. 1부 예배는 강유남 목사 인도로 반주 조공자 교수, 기도 신성수 목사, 성경봉독 이윤석 목사, 설교 엄기환 목사, 헌금기도 조영길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엄기환 목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왕상2:1-4)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당부의 유언처럼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학위수여식은 사회 윤성태 학장, 학사보고 박희근 교수, 학위 및 졸업증 수여 정익수 총장, 상장(노력상, 장려상, 우수상, 공로상) 수여, 총장 훈사, 모교에게 기념품 증정, 축사 정관호 목사, 격려사 조영덕 목사, 축송 조공자 교수, 광고 이윤석 교수, 축도 이재영 목사(이사장)의 순서로 진행됐

다. 학위수여식을 통해 신학사(B.Th) 5명(김순이, 박옥화, 이진행, 이화숙, 박이주), 목회학석사(M.Div.) 5명(김제이미, 박민수, 방명근, 연제득, 이준희), 기독교교육학박사(D.R.E.) 4명(권영길, 양경옥, 유정애, 이민철), 목회학박사(M.Div.) 3명(김종태, 정대영, 한상홍) 등이 총 17명이 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 졸업생은 첫 배출이다. 뉴욕총신대학교는 1979년 예장 합동 총회에서 뉴욕신학교를 창립함으로써 시작돼 1993년 예장 합동 78회 총회에서 뉴욕총신대학 및 신학교 인준 받았다. 1996년 정익수 목사가 4대 학장에 부임했으며, 2013년에는 초대 총장으로 부임했다. 강유남 목사가 2012년 뉴저지 캠퍼스 분교장, 2014년 학장이 됐다. 2018년에는 윤성태 박사가 분교 학장에 부임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독거노인들 섬기는 코이노니아선교회 일일관광 3년째, 노인잔치 6년째 계속

사우스베이 지역에 소재한 저소득 노인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들(평균연령 85세)은 5월과 11월을 기다린다. 해마다 5월과 11월이 되면 코이노니아선교회에서 일일관광 및 노인잔치 등 노인들이 참여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마련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코이노니아선교회에서 제공하는 일일관광은 올해로 3년째, 노인잔치는 6년째 계속 되고 있다. 5월 5일 어린이날 가디나에 소재한 세 곳의 저소득 노인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초청하여 통비치 수족관으로 일일관광을 다녀왔다. 시간은 쏠도 모르고 흥행색색의 다양한 물고기를 구경하는 노인에게 다리가 아프지 않냐고 물으니 집에 있으면 온 몸이 아파서 만사가 귀찮은데 바깥에 나와 걸으니 오히려 몸이 아프지 않다고 얼굴 가득 웃음이 가득하다. 올 가을에는 걷는 것이 불편한 노인들을 모시고 엘에이 시가지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곳으로 단체 소풍을 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5월 10일에는 노인 130명을 초청하여 토렌스 시에 소재한 골든웨스트타워 저소득 노인아파트에서 어머니날 맞이 노인잔치를 열어드렸다. 클래식 연주자들로 구성된 윈즈오브조이 자선공연단의 공연, 정성껏 준비한 점심식사 그리고 경품 등 다양하고 푸짐한 선물과 순서로 노인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선사하

였다. 특히 이날은 40여 명의 중국인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도 가졌다. 올 11월에는 가디나 시에 소재한 저소득 노인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 100명을 초청하여 추수감사절 맞이 노인잔치를 개최할 계획하고 있다. 대부분 노인들의 경우 배우자와 사별하고 혼자 생활하기 때문에 고립감과 외로움이 커지면서 우울한 증세를 가지고 있다. 또한 고령화는 신체적, 정신적 기능 및 건강의 쇠퇴를 가져오고 그로 인해 노인들은 사회활동은 물론이고 신체활동에 제약 받고 있다. 신체기능의 감퇴는 외부활동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 결과건강이 더욱 악화되고 활동이 더욱 제한을 받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결국 기본

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것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성격도 소극적이고 내향적으로 변하게 되면서 점차 외부와 자신을 격리시키게 됨으로써 종래에는 외로운 독거노인이 된다. 그동안 코이노니아 선교회의 박종희 목사는 우리들의 미래의 모습이기도 한 노인들이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을 높이고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연구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노인들을 돕고 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에게 분노하는 노인에게는 왜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지,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는 노인에게는 왜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닌지, 주변의 노인들과 화합하지 못하는 노인에게는 다른 노인들과 화합함으로써 얻어지는 유익에 대해 활동과 상담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다. 코이노니아선교회: (310)508-2733 (기사제공: 코이노니아선교회)



코이노니아선교회에서 노인잔치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있다

Worldwide Church Directory: Includes '동부(NY, NJ)교회', '뉴욕갯세미네교회', '뉴욕목양장교회',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뉴욕새사람교회', '뉴욕센트럴교회',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뉴저지성도교회', '리빙스톤교회', '빛과소금교회', '주비교회', '퀸즈장로교회', '퀸즈한인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브라질 새소망교회',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칠레 한인연합교회', '토론토 가든교회', '하와이 행복교회', '하와이 행복교회',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멕시코 선교 분부 교회', '브라질 새소망교회',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칠레 한인연합교회', '토론토 가든교회', '하와이 행복교회', '하와이 행복교회',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멕시코 선교 분부 교회'.

동부교계 게시판



제2차 할렐루야 준비기도회

뉴욕교협(회장 이만호 목사)이 주최하는 할렐루야 복음화대회 제2차 준비기도회가 5월 31일(목) 오전 10시30분 뉴욕장로교회(임시당회장 이용길 목사)에서 열린다. 할렐루야대회는 7월 9일(월), 10일(화), 11일(수) 저녁 7시30분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를 강사로 프라미스코회(담임 허연행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718)279-1414

뉴욕목사회 세미나

뉴욕목사회(회장 문석호 목사)가 주최하는 목회자 세미나가 '목회와 목회력'이라는 주제로 5월 24일(목) 오전 10시30분부터 뉴욕효신장로교회에서 열린다. 강사는 천환 목사(인천예일교회 담임, 고신총회장 역임).

▲문의: (718)762-5756, 2525

뉴욕새벽별장로교회 설립 5주년 감사예배

뉴욕새벽별장로교회(담임 정기태 목사)가 설립 5주년 맞아 오는 6월 3일(주) 오후 5시30분에 감사예배를 드린다. 이날 설교는 문중은 목사(KAPC 뉴욕노회장)가 맡는다.

▲문의: (917)733-7387

찬양대 반주자 청빙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담임 김해천 목사)는 찬양대(예배) 반주자를 청빙한다. 지원자격은 세례교인으로 피아노나 작곡 전공자, 찬양대 반주 경험자나 성가곡 반주가 가능해야 한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및 신앙고백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718)279-0523, giannile1007@gmail.com

뉴욕빌립보교회 새성전 입당 감사 심령부흥성회

뉴욕빌립보교회(담임 박희열 목사) 새성전 입당 감사 심령부흥성회가 "변화된 삶"이라는 주제로 6월 1일(금) 오후 8시30분, 2일(토) 오전 6시, 오후 8시30분, 3일(주) 오전 11시, 오후 1시30분에 열린다. 강사는 이용길 목사(필라델피아장로교회 원로).

▲문의: (718)358-3200, (646)413-8577

2018 청소년 리더십 캠프

패밀리리치(대표 정정숙 박사)가 주관하는 '청소년 리더십' 캠프가 6월 28일(목)부터 29일(토)까지 뉴저지 HNA 팰리세이드 프리미어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다. 참가대상은 9-12학년으로 등록비는 450달러. 베스트셀러 '성공하는 청소년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리더들이 가져야 할 7가지 습관을 훈련받는 전문 강사들의 지도아래 배운다.

▲문의: (201)242-4422

반주자 청빙

베이스아이드에 위치한 주사랑장로교회(담임 정준성 목사)에서 주일 3부 예배(오전 9시30분-오후 2시30분)와 금요 찬양예배(오후 7시45분-9시)로 설길 반주자를 청빙한다.

▲문의: (646)342-7993, pycmmra@gmail.com



뉴욕신학대학원 학위수여식을 마치고 교수와 졸업생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신학대학원 40주년... 학위수여식

이현숙 부총장 취임식, 권오현 총장 출판기념회 겸해

뉴욕신학대학교대학원(총장 권오현 박사)이 개교 40주년, 37회 학위수여식, 이현숙 부총장 취임식, 그리고 권오현 총장 출판기념식을 동시에 열었다.

5월 20일 오후 6시 선한목자교회(담임 박준열 목사)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뉴욕신학교 출신의 동문들과 재학생 및 졸업생, 동신대학과 교수, 지인들이 참석했다.

1부 예배 설교는 박찬희 목사(미주남침례뉴욕지방회 회장, 5회 졸업)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창 12:1-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2부는 개교 40주년 축하행사로 이어졌다.

사무총장 이현숙 박사가 학교 역할을 소개했으며 이병홍 목사, 신선능 목사, 권오현 총장 등 3인이 25년 이상 근무한 교수로 감사패를 받았다. 계속된 권오현 총장 출판기념회식에서는 이번에 출간된 "하박국 예언서 주석"에 대한 이현숙 박사의 서평이 있었다. 축사는 유동운 박사(인도선교사, 실전신학교수)가 했다.

3부에서는 부총장 취임식이 진행됐다.

부총장 위임사에서 이현숙 박사는 "권오현 총장님이 지켜온 길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순수성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 지켜갈 것"이라며 기도를 부탁했다.

황동의 목사(뉴비전교회)와 강찬식 목사(뉴욕소망교회)가 축사했다.

이어 4부 학위수여식이 진행돼 신학사(B.Th) 강명주, 교역학석사(M.Div.) 이영숙, 신학석사(Th.M.) 광석영 김경희 이정일 등 5명이 학위를 받았다. 논문 우수상과 성적 우수상은 이영숙 교역학석사 졸업생이 수상했다.

학위수여식 후 이수일 박사(실전신학교수)의 축사와 윤숙현 목사(중경동문회)의 권면, 박종일 목사(실전신학교수)의 토크 연주, 권오현 박사의 축도로 행사를 모두 마쳤다.

(정리: 유원정 기자)



글로벌뉴욕여성목회자연합회 어머니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우승 RCA, 준우승 C&MA

미동부 4개 미국교단 한인목회자연합 친선체육대회

미동부 지역에 있는 4개 미국교단(C&MA, PCA, RCA, A/G) 한인 목회자 연합 친선체육대회가 5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엘리펀트 파크에서 열렸다.

4개 교단연합 체육대회는 2011년부터 4년 연속 열렸으나 바쁜 목회일정 가운데 3년을 쉬고 올해 다시 모였다. 4개 교단 목회자들은 앞으로는 각 교단이 돌아가며 주관하

여 매년 대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경기가 좋은 화창한 날씨 가운데 먼저 배구와 족구 경기가 진행됐으며 RCA가 종합우승하고 회장 박준열 목사가 우승컵을 받았으며, C&MA가 준우승을 해 지방회장 이지음 목사가 준우승컵을 받았다.

경기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구자범 목사(PCA) 인도로 기도 이풍삼 목사(RCA), 설교 이병수 목사

(C&MA), 광고 오태환 목사(PCA), 축도 김영철 목사(A/G)의 순서로



4개 미국교단 한인목회자연합 친선체육대회에서 배구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뉴욕장로교회 담임 김학진 목사 결정

20일 공동회의서 88.3%지지 받아

뉴욕장로교회가 김학진 목사(사진)를 담임목사로 결정했다.

뉴욕장로교회는 5월 20일 열린 공동회의에서 김학진 목사 청빙결정에서 418 유효표 중 찬성 369표, 반대 49표 등 88.3%의 지지를 받은 김학진 목사를 차기 담임목사로 결정했다. 김 목사는 현재 고정된 목회지가 없어 1-2달의 정리기간 후 부임할 예정이다.

뉴욕장로교회는 2015년 전임 목사가 교회를 떠난 후 필라델피아장로교회 원로 이용길 목사가 임시당회장으로 부임해 교회를 안정시키고 차기 담임목사 청빙까지 인도했다.

뉴욕장로교회 청빙위원회는 이번 청빙에 지원한 40여명의 목회자들 중 4명으로 후보를 압축하고 청빙위 내부 투표로 반 이상의 찬성을 얻은 경우 교회에 초대해 설교를 듣기로 했으나, 김학진 목사만 9명의 위원 중 8명의 지지를 받아 과반수를 넘겼다. 이에 2주전 뉴욕장로교회에 부흥성회 강사로 초대해 부흥성회를 열었으며, 1주일 전 광고 후 공동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을 한 것이다.

김학진 목사(56세)는 중학교 졸업 후 아버지 고 김경덕 목사(예장합동, 평양산정교회 부교역자 역



임)와 함께 미국에 온 15세로 LA에서 고등학교와 바이올리대학(기독교교육)을 졸업하고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신학교를 졸업했다. 필라델피아장로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사역하며 대학부를 맡았으며, 1997년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필라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동양선교회 부목사를 거쳐 2000년 사랑의교회로 옮겨 행정수석목사로 사역하다 2009년 옥한흠 목사의 추천으로 드림의교회를 개척했다. 1년 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로 자리를 옮겨 6년여 목회를 했으며 지난해 말 후임이 부임한 후 뉴욕장로교회 청빙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지원했다고 알려졌다.

(정리: 유원정 기자)

"하나님과 화목하라"

글로벌여목연, 18차 어머니기도회

글로벌뉴욕여성목회자연합회(회장 권금주 목사)가 "기도하는 어머니는 행복합니다"란 표어를 내걸고 매월 갖는 '어머니기도회'(18차)가 5월 16일 오전 11시 뉴욕한마음교회(담임 정양숙 목사)에서 열렸다.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열린 기도회 1부 예배는 사회 박도보라 목사, 찬양 마요셉 전도사, 기도 오명희 목사, 특송 안경순 목사 김사라 목사, 설교 권금주 목사, 합심 기도 전희수 목사, 헌금특송 남상보 집사, 헌금기도 심의례 전도사,

광고 최근선 목사, 축도 정양숙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권금주 목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잠16:7)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진정한 화목의 복은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이며 이 화목의 복은 복중에 복"이라며, "첫째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라, 둘째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하나님 편에서 싸운다면 진정한 화평과 화목, 승리와 구원은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심기도 시간에는 특별히 한국 어머니기도회 주관 국제기도대성회(6월 6-16일, 한국 청원진주초대교회)와 미북정상회담을 위해 기도했다.

2부 친교는 김사라 목사 기도에 이어 뉴욕한마음교회 여전도회에서 준비한 사랑의 애찬을 나눴다.

한편 6월 어머니기도회는 새생명선교회(대표 심의례 전도사) 회원들을 초청한다. 일시는 6월 20일(수) 오전 10시 뉴욕 기쁨과영광교회.

(기사제공: 글로벌뉴욕여성목회자연합회)

진행됐다. 이병수 목사는 "기왕 믿으려면 정말 잘 믿어야 한다"라며 교단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의 강한 역사 속에 사명을 다하는 목회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리빙스톤교회 유상열 목사(왼쪽)가 사랑의동산교회 강신용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 맡은 직분 다하라"

리빙스톤교회 베이스아이드 이전... 감사예배 드려

리빙스톤교회(담임 유상열 목사) 이전 감사예배가 지난 20일 오후 5시30분 열렸다. 리빙스톤교회는 지난 2월부터 베이스아이드 본 교회당(215-29, 42 애브뉴)에서 예배를 드려왔다.

1부 예배는 유상열 목사 인도로 기도 최영재 집사, 성경봉독 박영철 목사, 특송 김영환 전도사, 말씀 최창섭 목사, 색서폰 특주 유상열 목사, 봉헌기도 도국진 집사, 축도 강신용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최창섭 목사(뉴욕예베에셀선교회 담임)는 "교회의 교회됨"(엡 1:22-12)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좋은 교회로 소문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①믿음의 역사가 있었으며 ②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 몸처럼 여기고 사랑한 사랑의 수가 있었으며 ③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그 날에 부끄럼 없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며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알고, 주님 말씀에 순복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맡은 직분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교회가 되라"고 전했다.

2부 감사의 시간에서는 유상열 목사가 사랑의동산교회 강신용 목

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유상열 목사는 "현 교회당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남기고 간 사랑의동산교회와 강신용 목사님에게 감사한다"며 패를 전달했다.

강신용 목사는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열어주셨으니 담임목사님과 성도들이 뭉쳐서 영적인 성장과 양적 성장을 이루기 바란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황동의 목사(뉴비전교회 담임)는 "리빙스톤은 산돌"이라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라(벧전 2:4)는 말씀대로 큰 교회를 이루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희수 목사(기쁨과영광교회 담임)는 "산돌"의 의미를 설명하며 "생수가 흘러넘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사했다.

이어 정순원 목사(교협 부회장)가 "리빙스톤의 유래, 총에 받다 사랑 받는다"를 말하며 앞으로는 교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상열 목사의 광고에 이어 김정길 목사(엘피선교단 대표)의 특송이 있었으며, 박이스라엘 목사(새소망성리교회 담임)의 축복 및 만찬기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영성칼럼

(8면에서 계속)

겨우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저를 따르고 나머지 10지파는 반역여로보암을 따르는데... 그래도 선택받은 약속의 자녀들을 철저히 하는데 이열치열의 방법이 하나님의 애용무기이다. 자녀들의 치명적인 죄를 다루는데 같은 죄로 그러나 한 수 더 뜨는 이를 사용하신다. 쫓겨 다니던 여로보암에게 10지파가 따르고 북방 왕국이 생겨나니 저들을 르호보암에게로 가지 못하고 자신에게 묶어두는 작전으로 금송아지 돌을 만들어 변열과 단에 두어 이스라엘로 설리게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원하면 제사장을 시켜주고 모든 여호와의 제사장을 탄압하니 저들이 모두 유다로 넘어온다.

여호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의 구하는 자들이 열조의 하나님께 제사하고 섬기며 3년간 나라가 강성해지고 견고해지니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또 버렸다. 제위 5년에 애굽의 사사가 쳐들어오고 보물들을 빼앗기니 여호와 앞에 겸비하여 노를 돌이키시니 멸하지 않으시고 12년을 더 치리하고 죽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많이 쌓일수록 성공의 잣대로 여기는 세상에서 솔로몬만큼 승한 왕이 있을까마는 고생은 기막히게 했어도 적어도 다윗은 솔로몬에게 3가지 소중한 보물을 유산으로 남겨준 성공한 아버라고 볼 수 있다. 하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와 할 일이라는 것과 이를 위해 지혜가 필수라는 것,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에게서만이 온다는 정신적인 확고한 유산을 왕위와 함께 물려받았다. 그러나 그 현명한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연락에 빠지더니 만 아들에게 준 것이라곤 알맹이는

다 우려먹고 껍데기만 화려한 관을 받았건만 세상적인 부나 권력도 누릴만한 사람의 그릇이 따라오질 못해 그릇만으로 즐기고 유적이 급급하다 갔다.

재벌가들의 어지러운 돈 난리, 돈 싸움을 보며... 무엇을 위해 그렇게까지 집안 식구 간에 서로 많이 움켜쥐려 혈투를 해야 하는지? 그 많은 돈을 나라위해 공익위해 나눌 수 없는 것인지? 내가 솔로몬이 아니라 말하기가 쉬운 것일 테지만...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으니... 다시 한번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생애를 무엇을 위해 정진하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에게 무엇을 귀하다 비치도록 마음속에 확실한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할 수 있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웃기를 여며본다.

사랑하는 주님- 이래도 저래도 주님이 없는 인생은 불행, 불만에 지옥입니다. 어떤 형편이든 자족하며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것을 배운 주님과 함께 하는 인생이 천국이네여. 지금이라도 눈 떴으니 세상에 속한 것 주님 만큼으로 족하며 나눠주는 생이 되도록 어려운 현실로 좁아진 심정들을 넓혀주소서. 우리 아이들이 진심으로 주님과 더불어 살며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행복을 누리도록 믿음의 안정된 심령을 물려받기를 간구하며 마음을 동여 봅니다. 주님을 나의 가장 귀한 분으로 사랑함이 얼마나 소중한 복인지 새삼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크나 큰 영광의 자리로 몸뚱이를 바르게 소중합니다. 주님을 알아 나의 최고 보물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가슴을 아이들에게 확실히 물려주길 소원합니다.

heeenlee55@hanmail.net

감사한인교회 구봉주 담임목사 취임

김영길 원로목사 추대에배도 함께 가져



감사한인교회 구봉주 담임목사 취임 및 김영길 원로목사 추대에배에서 김영길 원로목사가 본교회 2대 담임 구봉주 목사를 소개하고 있다



은혜한인교회 창립 36주년 창립기념 부흥성회에서 장학봉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복으로 가는 길' 주제

은혜한인교회 설립36주년 기념 부흥성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설립 36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복으로 가는 길'이란 주제로 17일부터 20일까지 열렸다.

장학봉 목사(성안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열린 이번 부흥성회는 첫날 저녁 '하나님의 타이밍'(왕하8:4-6)라는 제목으로 장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장학봉 목사는 "하나님께서서 우리들의 모든 삶에 개입하시고 앞서서 그 상황들을 만지셔서 아주 극적인 타이밍에 우리들에게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계신다"며, "우리가 그 타이밍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관계(섬김)를 잘 가져야 한다. 성도들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 그 관계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을 잘 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종의 입술

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셋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믿음은 행동과 함께 가는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므로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 행동으로 나타나야 진정한 믿음인 것이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 타이밍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받은 성도님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둘째 날 새벽집회는 '거침없는 복'(유1:24-25), 저녁집회는 '중심을 인정받으라'(삼상16:7), 셋째 날 새벽집회는 '상처를 치유하라'(사30:23-26), 저녁집회는 '에베에 셀'(삼상7:5-12)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또한 18일 오전 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정삼숙 사모를 강사로 겸 설교 때 형성되는 것이다. 둘째, 순종을 잘 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종의 입술

(박준호 기자)



제1회 선교박람회 발족준비모임에서 김정환 선교사가 선교박람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 1회 선교박람회 발족 준비모임

6월 18일 한인세계선교기구 발족

제 1회 선교박람회 발족준비모임이 21일 오전 10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웨딩채플에서 열렸다.

1부 예배에서 조현영 목사(OC수석부회장, 큰빛감리교회 담임)는 로마서 10장 15-16절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조 목사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을 때 준비된 사람만나고 하나님 약속의 역사 일어나게 된다. 사랑, 축복, 은혜를 받았다. 이 귀한 복을 아직도 전해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누는 민족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열린 발족준비모임에서 김정환 선교사는 "복미주 안에 선교동원운동이 잘 이뤄지기 위해 모임을 가졌다"며 "오는 6월 18일 한인세계선교기구(기구) (Korean World Mission Opportunity) 발족대회를 하게 된다. 발족대회에서는 11월에는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리는 선교박람회를 통해 한인세계선교기구(기구)의 창립위원이 되실 것이다. 이번 모

임은 앞으로 시행될 선교기구의 발족을 위한 준비모임으로 함께 기초를 놓을 분들을 모시는 것이다. 선교사, 목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복미주 전 지역의 한인교회를 위한 새로운 시대를 위한 선교동원 대중운동의 새로운 기초를 만들 것이며 선교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모임이 될 것"이라 말했다.

이번 발족준비모임에서 최찬영 선교사가 격려사를 했으며 이재환 선교사가 '선교운동에 대하여', 김창훈 선교사가 '캄보디아 예수마을 개발'에 대해서, 노정해 목사가 '강소형선교교회 그룹 1호 리더'에 대해 그리고 김정환 선교사가 '선교박람회와 선교기구 발족 로드맵 제시'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발족준비모임은 모든 참석자들이 제 1회 선교박람회에 대하여 합심기도를 한 후 박희성 목사 사모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감사한인교회 구봉주 담임목사 취임 및 김영길 원로목사 추대에배가 20일 오후 4시 성황리에 거행됐다.

이날 구봉주 목사는 "부족한 종 불려주셔서 목회자로 삼으시고 오렌지카운티 대학청년부 섬기게 하시고 2대 담임목사로 섬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며 "감사한인교회 YDC청년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김영길 담임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한인교회 2대 담임목사로 사역하면서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는 목회를 하고 싶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목회를 하고 싶고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목회를 하겠다.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겠다.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겠다. 담임목사로 성도님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은퇴하는 김영길 목사는 "그동안 감사한인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주심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가슴으로 읽을 수 있는 글을 쓰고 싶고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목회를 시작하는 분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영길 목사 집례로 시작된 구봉주 담임목사 취임식은 김영길 장로가 소개했으며 리치 구에라 목사(하나님의성회 남가주 지방회 감독)의 서약이 있는 후 김영길 목사가 구 목사의 담임목사 취임을 공포했다.

이어 지용수 목사(창원양곡교회)가 권면을, 이정현 목사(빛과소금의교회)가 축사했으며 김영길 목사가 취임패를 증명했다.

이날 본 교회 YDC 영커풀 그룹의 축가가 있는 후 구봉주 목사가 답사했다.

담임목사 취임식에 이어 열린 원로목사 추대식은 구봉주 담임목사의 집례로 시작됐다. 황승우 장로가 소개 및 추대사를 했으며 구봉주 목사가 공포, 박종순 목사(중신교회 원로)와 레이 레이첼 목사(하나님의 성회 지방회장)가 축사했으며 구봉주 목사가 원로목사패를 증명했다.

이어 김영길 목사가 답사했다. 이날 예배는 김영길 원로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날 담임목사 취임 및 원로목사 추대식이 열리기전 시작된 예배는 김영길 목사 집례로 시작, 박상훈 목사가 기도했으며 연합성가대 찬양이 있는 후 손병렬 목사(포항중앙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전15:10)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준호 기자)



2018 CTS희망나눔콘서트가 미주비전교회에서 열렸다

'미자립교회 돕기 기금 마련'

2018 CTS 희망나눔콘서트 성료

CTS기독교TV(CTS America)와 OC기독교교회협의회가 공동주최한 2018 CTS 희망나눔콘서트가 '미자립교회 돕기 기금 마련'을 위한 취지로 지난 5월 19일 미주비전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미주비전교회 이서 목사(OC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의 환영 인사 및 기도로 시작한 CTS 희망나눔콘서트는 CTS문화사역팀(CTS 여성합창단, CTS헌성합창단, CTS String Ensemble, CTS iDream Choir)을 주축으로 꾸며졌고, 특히 이번 음악회에선 교인들에게 익숙한 은혜로운 성가곡들을 많이 선보여 보다 친숙한 시간이었다.

콘서트는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연령층이 다양하게 구성된 4팀의 CTS 문화사역팀이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음악회를 이어갔고 특별 게스트인 선예(전 워터걸스 메인 싱어)의 간증과 찬양이 더해져 보다 풍성한 시간이었다.

이번 희망나눔콘서트의 음악 감독을 맡았던 김명옥 지휘자(CTS여성합창단, 헌성합창단)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기부하는 형식으로 준비되는 CTS 희망나눔콘서트의 취지와 음악회에서 나누게 될 찬양 그리고 선예 씨의 간증을 통해 "다음 세대의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에게 삶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음악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CTS는 젊은이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5분 영상 메시지(토기장이교회 임경남 목사 출연)를 통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 '올바른 길'을 제시하자는 메시지가 전해져 CTS가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사역에 대해서도 알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음악회의 마지막은 희망나눔콘서트의 전통을 따라, 모든 출연자가 무대에 올라 관객들과 함께 부르는 연합찬양('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장식됐고 갈보리 새생명교회 민승기 목사(OC기독교교회협의회 이사장)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과 간증,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메시지 등으로 알차게 준비된 2018 CTS희망나눔콘서트의 수익금은 오렌지카운티 지역의 미자립교회들을 돕는 일에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CTS기독교TV(CTS America)는 방송 선교 뿐 아니라 이웃과 지역 사회를 섬기는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매해 희망나눔콘서트 및 다양한 장학금 행사를 열어나가고 있다.

CTS 방송은 현재 DirecTV 채널 2092와 미 동부에서는 Cable Vision을 통해 시청할 수 있고 홈페이지(www.ctsamericatv.com)를 통해 지난 방송을 '다시보기' 할 수 있다.

(기사제공: CTS America)



크리스찬투데이 창간 21주년 기념 행사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일실 편집인

서부교계 게시판



남가주든든한교회 설립 17주년 및 임직 감사예배

남가주든든한교회(담임 김현인목사)는 6월 3일(주일) 오후 3시, 설립 17주년을 맞아 감사예배와 함께 손덕수, 오영호 장로장립, 박남준, 우재현, 이재영 안수집사취임, 임성호, 윤태원, 마성수, 조한규, 최민 안수집사 임직, 김선영, 김영애 방경옥 최현욱 권사취임식을 갖는다. ▲ 문의: (213)481-2779

에피포도예술인 협회 출판기념 및 에피포도예술상 시상식

에피포도예술인협회(대표 백승철목사)는 '기다림이 그리움 되는 그곳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하늘' 출판 기념식과 21회 에피포도예술상 시상식을 26일(토) 오후 5시30분 로텍스호텔에서 갖는다. 수상자는 문학상 분상(시) 신영, 신인상(시) 오석환, 추천완료 김동수. 본 책자에는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제 3회 독후감 공모 수상자의 작품도 수록됐다. ▲ 문의: (714)907-7430

크리스찬 문학 제 29집 출판기념회 및 음악회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회장 정지운)는 오는 6월2일 오전 10시 로텍스 호텔에서 창립 35주년을 맞아 크리스찬문학 제 29집을 출간하고 출판 기념회 및 음악회를 갖는다. ▲ 문의: (213)249-0771

2018 UMC 국제제자대회

2018 연합감리교회 국제제자대회가 '세상속의 제자리더십'이란 주제로 25일(금)부터 27일(주일)까지 산타라라리연합감리교회(담임 홍삼열 목사)에서 열린다. ▲ 문의: 총회제자사역부 (615) 340-7028,

LA한인침례교회 남가주말알선교단 집회

LA한인침례교회(담임 박성근 목사)는 남가주말알선교단 방문집회를 25일(금) 오후 7시30분에 갖는다. ▲ 문의: 이종희 목사 (714)393-6122

소망소사이어티 아프리카 차드 4차 비전트립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봉자 장로)는 아프리카 차드 4차 비전트립을 28일(월)부터 6월7일(목)까지 실시한다. 이번 비전트립은 차드 지역에 우물을 마련하게 된다. ▲ 문의: (562)977-4580

베델부흥집회

베델한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는 베델부흥집회를 '회복'이란 주제로 6월 1일(금)부터 3일(주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백동주 목사(목포사랑의교회 담임) ▲ 문의: (949)854-4010

인랜드교회 박신철 목사 송별예배

인랜드교회 담임 박신철 목사 송별예배가 27일(주일) 오후 5시에 갖는다. ▲ 문의: (909)622-2324

임마누엘장로교회 아시아 선교세미나

임마누엘장로교회(담임 손원배 목사)는 아시아 선교세미나를 26일(토)부터 6월9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본교회 중등부실에서 갖는다. 일정은 △26일: 인도네시아 김귀영 선교사, 무슬림 세계관과 무슬림 전도법, △6월2일: C국 정00 선교사, 동아시아 특정지역에서의 변화사역, △6월9일: 베트남 정원 선교사, 교회와 선교사가 본 아시아 선교 차이점 ▲ 문의: (408)263-5100

제1차 국제총회 장로세미나

제1차 국제총회 장로세미나가 에브리데이교회(담임 최홍주 목사)에서 6월2일(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개최된다. ▲ 문의: (818)832-6628

달라스교회연합 부흥성회

달라스교회연합부흥성회가 25일(금)부터 27일(주일)까지 열린다. 일정은 25일(금) 저녁 7시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담임 이성철 목사), 26일(토) 저녁 7시 빛나리교회(담임 정찬수 목사), 28일(주일) 오후 6시 세미한교회(담임 최병락 목사)이며 강사는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담임)이다. ▲ 문의: (972)258-0991, (972)238-1127, (972)446-0178

지면신문은 월간, 인터넷 등 미디어선교 활발

크리스찬투데이 창간 21주년 감사예배

크리스찬 투데이(발행인 서종천 목사) 창간 21주년 축하행사가 20일 오후 5시 투데이 사옥에서 열렸다. 행사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송금관 목사(취재부장) 사회로 시작돼 고주모 목사(양문장로교회) 기도와 이상기 목사(평강교회)의 설교로 진행됐다.

이상기 목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시1:3)란 제목으로 "크리스찬투데이 창간 21주년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며 "이 신문은 하나님이다. 이 신문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더 빠르게 세계교회의 파수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사육을 마련하고 창간 21주년을 맞는 크리스찬투데이를 향해 축복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서일실 편집인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순서에서 발행인 서종천 목사가 인사말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찬양과 토크쇼를 통해 독자와 언론사 간의 대화의 장을 이루며 격의 없는 기쁨과 축하의 장을 이루었다.

이날 축사는 전인철 목사(생명의 말씀사)와 이재권 장로가 맡았으며 이정열 자매와 허훈 형제의 찬양이 있는 후 헌선희 목사(예장미주합동 총회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크리스찬투데이 지면 신문은 매월 발행되고 있으며 인터넷 신문을 비롯한 미디어 선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자세한 것은 www.christiantoday.us www.ctn.media에서 볼 수 있다.

(이성자 기자)

여의도순복음, 한국교회 통합촉구안 통과

순복음 5개 교단 일제히 정기총회

순복음 교단이 21일 일제히 제67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교역자 연금문제, 임원선출 등 주요 회무를 처리했다. 순복음 교단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여의도순복음, 서대문, 광화문, 신수동)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예하성) 5개 교단으로 나누어져 있다.

기하성 여의도순복음(총회장 이영훈 목사)은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교역자연금공제회 운영상황 등을 보고했다. 교단은 “교역자연금공제회에 순복음 5개 교단 소속 2196명의 교역자가 가입돼 있으며, 이 중 기하성 여의도가 68%, 신수동 10%, 서대문 7%, 예하성 6%, 광화문 3%가 가입돼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지난 1년간 20억원 증액돼 162억원을 운용하고 있다”면서 “기하성 신수동측 소속 박모 서모 목사 등이 횡령한 금액을 되찾기 위해 순총회원과 재단법인 기하성에 대해 가압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총대들은 ‘2개월 이내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이 각각 임시총회를 열고 기구를 통합해야 하며 통합기구의 대표는 엄기호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한다’는 통합촉구안을 통과시켰다. 이영훈 총회장은 “한국교회가 남북통일을 이루려면 먼저 교파와 지역을 뛰어넘어 성령 안에서 하나된의 뜻을 높여야 한다”면서 “내년 3·1운동 100주년 되는 해인데, 교회 연합기관이 먼저 하나 돼 행사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기하성 여의도순복음은 3261개 교회에 115만1900여명의 성도가 소속돼 있으며, 총회회관 건립기금 5억원을 적립했다고 밝혔다. 오는 9월에는 순복음 선교사 내한 90주년을 기념해 순복음 교단 목회자 전체를 초청해 신학 심포지엄을 개최기로 했다.

기하성 서대문측도 이날 전북 전

주 순복음침사당교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정동균 총회장 등 임원들을 유임시켰다. 기하성 서대문측은 650여개 교회가 소속돼 있다고 보고했다. 정 총회장은 “교단의 미래를 위해 총회신학교를 정상화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하성 교역자들의 연금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하성 신수동측은 충북 제천 순복음총회신학교에서 김서호 광주순복음교회 목사를 총회장에 재추대했다. 교단은 교회 수가 850개라고 밝혔다. 기하성 광화문측은 제주 명성아카데미하우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함동근 서울 순복음한성교회 목사를 총회장에 재추대했다. 교단은 500여개 교회가 소속돼 있다고 밝혔다.

예하성은 경기도 안양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장에는 임용재 포천 산정리순복음교회 목사가 선출됐다.

한교봉, 4인 공동 대표회장 체제로 전환

이영훈·정성진·고명진·소강석 목사 선출

한국교회봉사단(한교봉·이사장 정성진 목사)이 공동 대표회장 체제로 전환했다. 또 기독교연합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외연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교봉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12층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 정성진(거룩한빛성교회) 고명진(수원중앙침례교회) 소강석(새에덴교회) 목사를 공동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목사는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급성장을 이뤘음에도 끊임없는 분열과 교권주의, 물량주의 등으로 인해 기독교의 순수한 힘을 잃어가고 있

다”면서 “한교봉이 섬김과 나눔 희생의 분을 보이고 교회를 거듭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회에서는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공동 대표회장 전계현 최기학 전명구 이영훈)와 업무협약을 맺고 재난재해 구호, 북한지원, 특별모금활동 등을 통해 협력기로 했다. 최기학 목사는 “2007년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 당시 한교봉의 섬김활동은 80만 한국교회 자원봉사자의 마중물이 돼 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협약을 통해 한국교회가 더 효율적인 봉사 체계를 구축해 이웃과 한국교회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교회 자원봉사자들의 통일시대 준비

미선컵 전국태권도 대회… “태권도 선교” 다짐

전국 109개 태권도체육관 선수 가족 등 4500여명 참석

‘2018 Mission컵 전국태권도대회’가 22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렸다. (사)세계태권도선교협회·(사)생활체육세계태권도연맹·(사)대한프로태권도연맹이 주최하고 순복음노원교회·서울제일교회가 후원했다. 투인클·하이이노텍·한국스포츠·노원참트트병원은 협찬했다.

행사는 세계태권도선교협회 총재인 대화장 유재필(순복음노원교회) 원로목사를 비롯해 부총재 심원보(서울제일교회) 원로목사, 부총재 이동섭(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장로, 부대회장 이승규(순복음노원교회) 목사, 상임회장 박백희 장로, 사무총장 김희도 장로 등이 참석했다.

총재 유재필 목사는 대회사에서 “지난 3월 30일 태권도를 국가(國)로 지정하는 법률인 ‘태권도 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기쁨을 누리며 동시에 세계태권도 선교협회가 전국태권도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말했다. 부총재

이동섭 국회의원은 환영사에서 “2018 미선컵 전국태권도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미선컵 전국태권도대회가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행사는 전국 109개 태권도체육관 및 단체 소속 선수 2216명을 비롯해 선수가족·관계자 등 총 4500여명이 참가했다. 오전 9시부터 품새(개인전, 단체전, 복식전, 자유품새), 태권체조, 단체시범을 실시했다.

토너먼트 방식과 컷오프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대한태권도협회의 품새 경기규칙을 적용했다. 시상은 각 조별로 종합우승 500만원, 종합준우승 300만원, 종합3위 100만원, 종합4위 50만원, 종합5위 30만원, 종합6위 10만원, 각 종목 부별 우승팀 장학금 총 460만원을 줬다.

개회식은 이윤재 아나운서의 사회로 오전 11시부터 진행됐다. 상임회장 박백희 장로가 개회선언을, 부대회장 이승규 목사가 기도했다. 김희도 사무총장은 대회 경과보고

와 연합 활동을 위한 역할론도 다루었다.

정 목사는 “한교총과 한교봉의 협력은 한국교회가 봉사로 하나 되는 일에 있어 큰 진전을 이루는 일”이라며 “공동 대표회장 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평화통일, 저출산 등 시대적 이슈에 대한 한국교회 공동의 제안과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목사는 “봉사와 섬김을 바탕으로 한교총과의 협력을 발전시켜 3대 교회연합기구로 대통합을 이뤄서 새로운 역사를 세워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교봉은 산하에 국내사업본부 국내재난본부 북한사업본부 해외사업본부 디아코니아포럼을 설립해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10개 주요 교단 목회자로 구성된 공동 대표단을 중심으로 사회적 책임 운동을 주도할 계획이다.

를 했다. 개회식 후엔 수도권태권도시범단이 고난도 태권도 시범을 선보였다. 2부에선 본격적으로 경기가치러졌다.

세계태권도선교협회는 태권도를 통해 국위를 선양하고 복음도 전하기 위해 2002년 11월 15일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세계 42개국에 지회를 두고, 각 나라에 67명의 태권도 선교사를 파송했다. 2004년과 2013년에는 국제대회를 개최하여 태권도를 통한 국내·외 선교를 활성화했다.

한편 세계스포츠선교회(이사장 이광훈 목사)는 25-26일 크로아티아 카로르바크에서 ‘할렐루야 세계 태권도선교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크로아티아 태권도 보급 50주년을 맞아 축제를 겸하고 있다. 카로르바크 오픈대회와 제 1회 크로아티아 장애인 태권도 선교대회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한국교회는 1986년부터 태권도 단기 선교 팀을 만들고, 훈련된 사역을 각국에 파송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세계스포츠선교회 상임회장 최현부 목사는 “크로아티아 태권도를 통해 복음의 통로가 되어 지도록 기도 부탁 드린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 열고 계신다”

여의도순복음교회 60주년… ‘2018 한반도 평화...기도대성회’

6만7000명의 기도와 찬송소리는 다른 모든 소리를 없애버릴 정도로 웅장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18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한 ‘2018 한반도 평화와 희망나눔을 위한 기도대성회’는 세계 최대 교회의 영성이 사방실천을 넘어 한반도와 세계평화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3일간 내리던 장대비는 기도대성회 1시간을 앞두고 멈췄다. “부웅-” 영적 승리를 기대하는 양각 나팔이 울리자 붉은색 십자가 깃발을 든 기수가 등장했다. 그 뒤를 따르는 한반도기가 행사의 취지가 뭔지 보여줬다. 참석자들은 복음성이 ‘마지막 날에’ ‘찬송하라 내 영혼아’ 등을 부르며 하나님을 높였다.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는 ‘야웨의 칼, 기드온의 칼’이라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인간의 군사력보다 강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힘이 의지하자고 권면했다.

조목사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민족과의 전쟁에서 칼이나 창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했다”면서 “세상은 핵무기와 군사력을 강조하지만 성경은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가 전쟁의 위협을 안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군사로 택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셨다”며 “기드온이 빈 항아리에 햇빛을 넣어 전쟁에 나아갔듯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주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했다.

이영훈 담임목사도 성령충만과 기도,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교회의 60년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며 우리는 이 역사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목사는 한반도 북쪽통일과 나눔 섬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최근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열고 계신다”며 “하나님이 여시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때 한반도가 통일이 되도록 기도하면 주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선포했다. 세계오순절평화는 세계 성령운동을 주도한 공로로 조목사와 이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기도대성회는 남북 평화통일과 교회부흥을 바라는 국내외 성도들의 간절한 신앙고백으로 채워졌다. 주장사로 나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종교자문 팔라 화이트(뉴데스티니 크리스천센터) 목사와 미국 타임지 선정 ‘영향력 있는 100인’에 뽑힌 윌프레도 초코 데 헤수스(뉴라이프커버넌트미니스트리

스) 목사는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자고 했다. 화이트목사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하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주님께서 대한민국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도록,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자”고 했다. 헤수스 목사도 “소망이 없는 이 시대, 진정한 소망은 구원자인 예수님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딸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세우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 삶의 궤도를 성경적으로 수정하자”고 했다.

해외 참석자들은 수만명의 찬송과 간절한 기도소리에 적잖은 도전을 받았다고 했다. 영국에서 온 다니엘 애드제이(43)목사는 “인종과 국적은 달라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의 구주를 믿는 신앙의 동료라는 뜨거운 공동체 의식이 느껴졌다”며 “어메이징(놀랍다!)”을 외쳤다. 아프리카 레소토에서 온 리부센(29-여)씨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다함께 기도하고 또 국가와 통일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 감동스럽다”고 했다. 필리핀에서 사역 중인 고드윈 우게디(26) 선교사는 “그동안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예배를 인터넷으로 봐 왔는데 현장에서 본 느낌은 그동안 알던 것과 전혀 다르다. 정말 대단한 성회”라고 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평양조용기 심장전문의병원 건축기금을 전달했으며, 굿희들과 감사제금동 희망나눔 기금 협약식도 가졌다. 영등포구청은 희망나눔기금을 전달했다.

시도연합회 총무 박요셉 목사는 “그동안 교계 단체들이 성경에 입각해 지적해 왔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질의서에 담았다”면서 “후보자 검증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도연합회는 이날 말까지 후보자들의 답변을 받은 뒤 다음 달부터 후보자 해당 지역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나 온라인, SNS 등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동성에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동반연)도 선거 출마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오는 29일 발표한다.

동반연 관계자는 “지자체 단장, 시·군·구 의원, 교육감 후보 등 모든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동성애와 동성결혼,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해 찬성·반대·유보라는 객관식 문항으로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들이 1만명에 육박하기 때문에 동반연과 연계된 각 지역 시민단체가 직접 답변서를 받고 있다”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동성애에 관한 자료도 첨부해 후보자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는 부수적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은 교회 밖에서…꼼꼼히 체크

교계, 6·13지방선거 앞두고 후보 검증 나서

6·13 지방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독교인이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 매뉴얼’이 공개됐다. 또 전국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등은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질의에 나서는 등 기독교 유권자 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공동대표 배종석 정병오 정현구)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의 감수를 받아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포스터) 안내문을 제작·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윤실에 따르면 선거 후보들은 교회에 방문해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교인 등록 여부에 따라 활동 범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교회에 등록된 교인인 경우 교회가 교인의 선거 출마 소식을 소개할 수 있지만 경력 등을 광고할 수는 없다. 교인이 아닌 경우 후보가 교회를 방문했다는 사실도 언급해선 안 된다.

또 모든 선거운동은 교회 담장 밖에서 해야 한다. 후보들의

교회 방문은 가능하지만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드러낼 수 있는 행위는 할 수 없다. 교회가 후보에게 기도나 간증을 부탁하는 것도 불법이다. 선거법 위반 행위는 녹취나 녹화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국민연에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박제민 기윤실 팀장은 “기독교인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면 교회의 신뢰 하락과 복음 전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성도들은 시민으로서 선거에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교회는 철저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시도연합회)는 이날 중순부터 지방선거 출마자를 대상으로 질의서 발송을 전달하고 있다. 질의 내용은 ‘성적지향 차별금지 사유’가 포함된 지방인권조례 제정,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에 관한 의견, 근대문화보존 및 사업지원 필요성에 대한 견해 등 모두 10가지다.

소외 NGO 돕는 NGO 공식 출범

휴먼엔휴먼인터내셔널 창립총회 및 비전선포시

사단법인 휴먼엔휴먼인터내셔널 창립총회 및 비전선포시가 17일 서울 강동구 오륜교회(김은호 목사) 에넬홀에서 개최됐다.

휴먼엔휴먼인터내셔널은 기독교적 가치를 기반으로 좋은 콘텐츠가 있지만 재정적·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한 ‘소외 NGO’를 돕기 위해 지난해 1월 설립됐다.

환영인사를 전한 구병모 상임대표는 “지난 2월 1일 사단법인 승인이 났다”며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 사역이 뻗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진기 사무총장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배우 이아린과 남성우에 좋은씨앗(이유정, 이강혁)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미래세대 리더를 세우기 위해 청년 리더 위원들도 위촉했다.

고문은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홍정길 남서은혜교회 원로목사가 맡기로 했다.

손 교수는 격려사에서 “새로운 형태의 NGO 모델로 시작한 휴먼엔휴먼인터내셔널이 무엇보다도 도덕적 권위를 잃지 말고 우리사회에

건강한 중소 NGO들이 잘 설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했으면 한다”라고 했다.

홍목사는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면 반대하고 비방하고 훼방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설교를 한 주안강리교회 한상호목사는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처럼 비록 한 소년의 도시락에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었지만 그 섬김과 희생이 있었기에 기적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먼저 단계가 섬기고 희생하며 나아가 갈 때 큰 사역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기감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이철 목사

직무정지 전명구 감독회장 대행…9월 총회서 선출

기감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이철 목사 선출 기사의 사진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이철 감독중앙교회 목사가 선출됐다. 지난달 27일 법원 판결로 전명구 감독회장 직무가 정지된 지 20여일 만이다.

기감 총회는 총회실행부위원회(총실위)에서 이 목사를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결정했으며, 오는 9

월 총회를 열어 새 감독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총회 본부에서 열린 총실위에서는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이목사가 직무대행으로 낙점됐다. 이 직무대행은 총실위를 마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9월 감독회장 선거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감독회장 선거를 무

사히 진행하고 교단 정상화를 위해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기감 헌법인 ‘교리와 장정’에 따르면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 뒤 15일 이내에 총실위를 소집해 재보궐 선거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감은 다음 달 1일 총실위를 열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전 목사 직무와 관련된 소송이 변수로 남아 있다. 전 목사가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할 경우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방교육·재활사업 실시돼야”

‘2018 게임과용·과몰입 예방 캠페인’ 발대식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는 18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 앞에서 ‘2018 게임과용·과몰입 예방 캠페인’ 발대식을 가졌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게임산업 발전과 함께 게임과용·과몰입으로 인한 문제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며 캠페인 개최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성명은 또 “청소년들을 위한 게임과용·과몰입 예방교육이 각급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게임과용·과몰입 예방 캠페인 공익광고를 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재활 프로그램 확대도 필요하다고 했다.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

대표 김규호 목사는 “게임산업은 발전시키되 게임 과용과 과몰입은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에 캠페인을 통해 게임 과용과 과몰입을 예방하는데 조그 이어나가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의회에는 건전생활시민연대, 두번째출발, 밝은인터넷운동본부, 중독예방시민연대, 전국도박피해자모임, 선민네트워크 등 18개 교계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교도소 선교칼럼 (43)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마이클의 삶의 변화

지난번에 여러 종류의 다양한 신을 믿던 마이클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이클은 백인인데 흑인인 자기의 룸메이트(자의 장님이라 잘 보지 못하는) 루이스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예수님과 걷는 길" 목상집 1-4"을 같이 읽고 있는데 2권을 끝내서 이제 3권을 읽기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 재소자들이 이 책을 서로 읽어주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저는 주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과 걷는 길"을 쓰도록 인도해 주시고 비영리 단체인 변화프로젝트 교도소 문서선교를 통해 그 밖에도 많은 책들이 출판되어 교도소에 무료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변화프로젝트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신앙서적을 출판하였는데 마이클은 그 책들을 다 읽고 있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그의 생각과 삶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는지, 저는 그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격려가 됩니다.

마이클은 35세 정도의 젊은이로 머리와 수염이 길어서 일반 교인들과는 좀 달라 보이지만 목소리까지 아주 조용하고 성품은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먼저 그의 변화는 얼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이클의 얼굴과 눈빛은 혼돈 속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의 눈빛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이클의 변화는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전에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던 마이클이 세례를 받은 후부터는 항상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는 예배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돕고 계시는지를 간증하며 다른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돕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를 보면 성령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는 화를 잘 내던 사람인데 그러한 성품도 변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클은 교도소에 구속되면서 그의 어린 자녀들과 떨어져 있게 된 현실에 분노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후 교도소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도소에 오지 않았다면 교만했던 그가 겸손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며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거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몰랐던 상태에서 아이들을 양육했다면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 또한 잘못된 길로 인도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도소에 온 것에 대한 분노도 하나님께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는 불행해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였습니다. 마이클은 출감 후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려는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새로운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는 또 한 가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함을 알게 되었는데 자기는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더 많으니 그것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염려스럽다고 했습니다. 그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자식보다 더 사랑할 수 있을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자식들까지도 내려놓는 기도를 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지침서"(The Ultimate Parenting Guide)를 읽어 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미 그 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책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야 할지에 대한 40가지 방법을 제시한 책입니다.

마이클이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잠시 있다 지나가는 임시적인 선물일 뿐

입니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선물을 더 사랑하면 안된다는 것을 그는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클이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의 재판 날은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는 자신의 처지를 설명할 편지를 재판관에게 쓰고 싶어도 쓸 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한 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편지를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이클은 예수님을 만난 후 전에는 몰랐던 기도의 능력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제가 또 기뻐한 것은 마이클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하며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이클은 다음 예배시간에 자기가 성경구절을 읽어도 관망했느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 성경구절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찬양하는 구절이었습니다. 그 성경구절이 그의 마음에 다가온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예배시간에 그가 원하는 성경구절을 읽어도 좋다고 하며 그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이클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시며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 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는 마음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 더 기쁘게 헤드리고 싶어집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누리는 축복 중에 하나는 섬김을 통해 기쁨을 만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믿음이 자라서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섬기는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시려고 영적인 지도자로 훈련하기 시작하셨다고 믿습니다.

마이클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신 예수님과 성령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는 오늘도 교도소 선교에 불려주셔서 마이클의 영적인 성장을 눈으로 보며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마이클의 영적인 변화와 성장이 저에게 이렇게 큰 기쁨을 가져다주는데 예수님은 더욱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천국에서도 큰 기쁨임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모르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눅15:7).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눅15:10).
yonghui.mcdonald@gmail.com

선교 편지

에티오피아

"그런즉 아불로는 무엇이요 바울은 무엇이요,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신었고 아불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니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고전3:5-9).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에티오피아 사역과 저희 선교사 가족을 섬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에티오피아는 가장 더운 건기가 깊어만 갑니다. 쟁쟁한 햇볕 덕분에 마당에 바나나가 주렁주렁 열리고, 한국에서 가져와 뿌린 씨앗들이 자라나 야채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밭을 갈아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것이 힘들지만, 씨를 뿌린 것이 싹을 내고 탐스러운 열매와 푸성귀를 내는 것을 보는 기쁨이 너무나 큼니다. 올해도 에티오피아에 복음의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사역을 계속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에티오피아 신학대학원(EGST) 교수 사역: 장은혜 선교사는 2018년 봄 학기에 두 과목(교회와 선교/타문화권 복음제시법)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교단 Outreach, 선교를 담당하는 사역자들입니다.

학생들 중에 크루벨은 신입생으로 SIM (Society for International Ministries) East African Office에서 사역을 합니다. 이 단체는 저희가 소속된 선교단체로 아프리카 선교사를 발굴해서 세계 각국에 파송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35명의 동 아프리카 선교사들이 파키스탄, 중국, 그리고 다른 아프리카 지역에 파송되었고, 7명의 케냐, 우간다 선교사 후보생들, 23명의 에티오피아 선교사 후보생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크루벨도 선교사 후보생으로 선교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선교지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크루벨과 학생들이 학업을 통해서 잘 준비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에티오피아 교회들이 많은 선교사들을 발굴하여 세계 각국으로 파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주의 신학대학교(Evangelical Theological College) 교수 사역 ETC 신학대학은 2000년부터 오랫동안 장은혜 선교사가 가르쳤던 대학입니다. 봄 학기에 Advanced Evangelism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12명의 학생들이 구려자, 오로모, 구지, 캄바타, 하디야 등 다양한 부족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선교 사역에 헌신한 사역자들입니다. 저녁 강의 때마다 열정을 갖고 배우려는 학생들이 제게 큰 기쁨을 줍니다.

학생들 중에 특별히, 중국 여학생이 있는데 중국 본토 교회에서 에티오피아 선

교사로 파송 받아 왔습니다. 2007년부터 통신, 도로공사, 건축, 사업을 목적으로 에티오피아에 들어온 중국인들이 약 6만명 가량으로 증가했습니다. 중국에선 복음을 마음대로 전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땅에서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중국인 선교가 에티오피아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학교 과정을 통해서 중국인 선교사 학생 부부 그리고 에티오피아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학업을 마치고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5-9절 말씀처럼, 바울은 고린도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아불로는 그들에게 말씀을 강해하며 하나님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이십니다. 저희 선교사 부부가 에티오피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에티오피아 사역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키울 때, 많은 주의 사역자들이 일어나 세계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합심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때문입니다.

기도제목

1. 박종국 선교사가 목회자 훈련과 멘토링으로 에티오피아 목회자들을 잘 길 수 있도록.
2. 한국 방문(6월 3일-7월 20일): SIM, GMS, KWMA의 선교대회 일정으로 한국 방문합니다. 성령충만한 선교대회를 통해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3. 목회자 훈련원 겸 선교센터가 건축되도록.
4. 십자가선교회에서 온 50개의 내온 사인 십자가를 보급하여 교회가 개척되고, 각 지역교회가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5. 신학교 사역을 통해 제자들의 성령충만, 영적성장, 복음증거하는 사역자들이 성장하기를.
6. 에티오피아교회, 선교관련 자료들 수집하여 출판할 수 있도록.
7. 선교사 부부의 영육간의 건강함, 사역의 기쁨과 열매가 충만하도록.
8. 선교사 자녀: 대선이 직업을 통해서 가진 재능을 개발, 기쁨을 얻도록.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지역이 결혼생활과 신앙생활 축복,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장은혜 선교사
cushpark@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rcca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1:30 청소년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전 9:15, 11:30 영아예배: 오후 1:30 수요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www.lagumc.org	대중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아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저녁 7:30 Tel: (714)719-2244, Fax: (714)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gc.org	디아스포라교회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품어지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송출),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찬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4부): 오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6:00 수요일성경기도회: 오후 7:30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lin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후 12:00(영아) 주일 학교: 오전 10:00 목요찬양예배: 오전 5:30(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베델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성령찬양예배: 오전 9:15, 11:30 영아예배: 오후 1:30 수요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l@kb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ic.org	LA 복음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이영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아동부/청소년부: 오전 11:00 청년부: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30 금요일: 오후 8:00 성령찬양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323)641-0691 / ys2104@hotmail.com / www.lagumc.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아예배: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8:00 목요기도회: 저녁 8:00(월-토) Tel: (213)745-9191(CH), 사역(818)893-88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금요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수요일성경기도회: 오후 7:30 Tel: (949)857-9425,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대학부)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목요찬양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1 L.A., CA 90010
은혜안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찬양예배: 365일 24시간 Tel: (714)446-626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영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 성령찬양예배: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mchurch.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순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jc.org	종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학교: 오전 11:00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수요일예배: 오후 7:30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16800 Imp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토렌스노교회  담임목사: 김주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5:30(청년) 창세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들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GMS브라질신학교 사역에서 본 변혁과 갱신(5)



강성철 선교사
(브라질 GMS신학대학 학장)

한국교회에 바라는 변혁과 갱신

이제 우리 교단총회 GMS 선교회는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사역하는 선교지 사역들을 점검하고 바른신학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운동을 펼쳐야 할 때라고 본다. 세계 모든 교회와 선교사역지는 부패된 사회와 교회에 소금과 빛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회개하고 성령의 기름부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더 나아가 세계 사회 구석구석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세속화와 쾌락주의와 물질만능주의를

고 한국교회를 섬긴 준비된 사람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

영성과 지성 그리고 야성을 가진 준비된 지도자가 교단신학교를 섬기면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을 양육하고 훈련하여 배출하면 한국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줄 믿는다. 또한 신학교 교수도 시니어 선교사들 중 훌륭한 인격을 갖춘 실력 있는 분들이 학교 내에서 가르치고 학문을 연구하며 좋은 책들을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 가능하면 신학교 졸업반에 있는 학생들이 선교지에서 6개월 또는 1년 선교지 경험을 한 뒤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며 호소하면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생명을 내건 종들이다. 경험에서 깨달은 말씀은 힘이 있고 살리는 역사가 있다. 3박4일 또는 한 주간, 한 달 동안 새벽기도를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다. 분명히 목회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지금 한국교회는 매우 위태로운 가운데 있다. 언제 어느 시에 교회가 환난 풍파 시련을 만날 런지 모른다. 교회와 부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날이 석양에 해 기울 듯이 서서히 그림자가 나타나고 있다. 정신을 차리고 신앙 무장해야 한다.

4. 과시보다 실제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한국교회 되길 바란다

이제는 과대포장하고 선전하며 교인들을 선동하는 시대는 지났다. 성도들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 무엇이 진실인지를 안다. 이제 사회 각종 여러 분야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발하여야 한다. 신앙과 삶의 표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 예배자로 살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초점을 주님께

국민들의 지지 속에 촛불집회의 힘으로 현직에 있던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내고 새 정부가 들어섰다. 지금 조국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초 긴장상태에 있다. 온 국민들의 기억 속에는 만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가와 어른들의 무능력과 무책임 때문에 아무런 잘못도 없는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국민들이 정부와 교회지도자를 믿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전개되는 사회 전반에 나타난 총체적인 어둠의 현상들은 모두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다. 한국 및 브라질을 비롯한 세계의 대형교회의 종교재벌의 실체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교회를 향한 시선이 차갑기만 하다. 브라질도 마찬가지이다. 브라질에도 같은 맥락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브라질 개신교를 대표하는 대형교회들의 비리와 부정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향한 사회의 시선이 뜨겁기만 하다.

오늘의 교회와 신학교는 이 문제를 안고 고민해야 하겠지만에 발제안으로 내놓았다.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에 파송 받아 사역을 하는 선교사는 지역신학교 및 선교사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요, 사람들의 모암인 교회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이다.

천주교 종주국으로 시작한 브라질은 유럽이 그대로 옮겨왔고 그 후 세계 각 나라와 족속들이 들어와 세운 디아스포라 교회이다. 기층문화인 리베리아 반도 문화, 아프리카 흑인문화, 이 땅의 원주민 인디오 문화 위에 이민문화가 덧칠되어 다양한 문화를 이루며 살고 있다.

그러나 디아스포라 교회가 알아야 할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만이 문제의 해답이며 오직 우리의 살 길은 오순절 이후 2천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효과가 있는 회개와 성령체함이다.

지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 총회 산하 교회를 비롯한 세계교회가 정체 또는 침체되고 있다. 브라질 오순절교회 역시 교회성장이 멈추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교회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변질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령체함이 없는 교회는 단지 역사 속에서 무능력만을 지속시킬 따름이다.

이제 예수교장로회총회 GMS 선교부는 교단 운동이 아닌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원해본다. 본 교단 예수교장로회 선교사들이 다 성령충만함을 받고 저마다 선교사역을 뜨겁게 펼치며 나가므로 복미와 남미를 비롯한 세계만방에 흩어져 사역을 하고 있는 다양한 민족이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브라질과 남미 땅에 뜨겁게 나타날 줄 소원해 본다.

kangsungchuel@gmail.com

기도/칼럼

복되고 즐거운 믿음의 가정



박헌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교회)

가정의 달에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다. "사절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와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와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떤 가정이 복되고 즐거운 가정인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믿음의 반석위에 세워진 가정이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믿음의 세 가정이 나온다. 디모데와 루디아 그리고 빌립보 감독 간수장 집이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길에 젊은 디모데를 합류 시켰다. 디모데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 받는 자였다.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고,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받았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한 사람이 서서 건너와 우리를 도와 달라는 환상을 보았다. 그는 즉시 배를 타고 건너가 빌립보 성에 도착하였다.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 강가에 갔는데 거기서 루디아를 만났다. 그녀는 자색 옷감을 장사하는 자였다. 그녀에게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게 하셨다. 온 가족이 세례 받고, 루디아는 유럽 선교의 첫 열매가 되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접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치면서 고소를 당해 매 맞고 깊은 감옥에 던져졌다. 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 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며 차포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났다.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간 것으로 여겨 자결하려고 하다가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와 온 식구들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으며 크게 기뻐하였다.

하나님은 교회와 더불어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신다. 자녀들이 디모데처럼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 칭찬을 받아야 한다. 어머니들은 믿음의 여인 루디아처럼 첫 열매가 되어 귀한 자가 되어야 한다. 아버지들은 간수장처럼 믿음으로 절망을 딛고 온 집안을 기쁨이 넘치는 천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16:31).

bible66@gmail.com

다양한 문화 속 디아스포라교회가 살 길은 오직 예수 진리

신학교의 선교 집중, 평신도 사역 활용, 교회 과대포장 중지

앞세우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차지도 않게 하려는 사탄과 악한 마귀를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고 온 세상에 나아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야 한다고 본다.

각 나라와 종족, 다양한 문화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 교단 총회에 소속된 선교사는 나 자신부터 반성하고 올바른 신학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한인 선교사들의 신학은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임을 믿고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인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므로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한다.

[논의]
1) 우리는 지역의 상황과 문화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나?
2) 지방학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는가?

마지막으로 우리교단에 속한 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에 바라는 변혁과 갱신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자 한다

1. 신학교의 구조변경

신학교 총장은 한국교회를 섬기고 마지막 한 틈을 선교지에서 사역을 한 분이나 선교지에서 20년 이상 사역을 하

목사안수를 받도록 제도화 할 수 방안을 제안해본다.

2. 한국교회의 인식의 변화

선교는 교회가 수행하여야 할 영광스러운 임무요 사명이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다. 복음전파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 종류가 아니다. 반드시 행해야 하는 모든 교회를 향한 지상명령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보다도 선교에 목적을 두고 주력해 나가야 된다.

한국교회는 평신도의 역할을 과소평가 하지 말고 세계각처에 나가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평신도들이 그 지역에 파송되어 나가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의 사역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선교에 대한 이해와 성경실력을 향상시키고 받은 은사를 따라 선한 정치기질이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장을 만들어 주며 사명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우어주며 동기부여의 기회를 주기 바란다.

3. 광야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초청하여 강사로 세워 활용하시기 바란다

선교사는 타문화권에 나가 문화충격을 극복하고 각종 상황을 몸으로 부딪치며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며 승리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십자가 밑에

두고 사람들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나가는 말

오늘날 개신교회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주께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 이후 물질의 실체가 드러나 대형교회의 비리와 성공한 목사들의 오만과 사치와 부패가 드러나므로 교회는 힘을 잃고 사회 속에서 일컫기를 '세월호 선장=교회 목사'라며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뿐 아니라, 가장 불신하는 메이커로 목사가 지칭되면서 선교사도 도매값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참으로 신기한 것은 선교사나 목사들이 별로 기분 나빠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무감각하다. 내 환경과 내 밤통만 건드리지 않으면 별 문제가 안된다는 식이다. 이러한 개인주의 영향으로 오늘의 교회는 끼리끼리 좋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GMS 선교부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부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느껴지는 것은 나 혼자만의 느낌일까? 정말 슬프고 아프다.

자연히 한국교회와 미국의 교포교회를 비롯한 이민교회들에게 선교사는 번거로운 손님이 되어가고 선교운동은 그 열기가 식어지고 있으며 한국교회에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한국은 오랫동안 준비한 진보세력이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56)

8.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교회의 교육을 위한 성경적 통합 교육 이야기 (16) (Biblical Integration and Education in the Korean American Church)

정 신 애 박사 (사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이 이야기는 한인 교회교육을 위한 "성경적 통합교육"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상황과는 달리, 라이드가 반드시 있어야 교회에 다닐 수 있는 한인교회의 특성상, 한인 교회에는 부모님과 함께가 아니라 혼자서 교회에 출석하는 다음세대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의 장으로 삼고 신앙교육을 진행할 만큼의 충분한 시간, 그리고 심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성경적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했던 부분 그 세 번째는 자녀교육에 있어서 신앙적 가치와 세속적 가치의 충돌이 있을 경우, 세속적 가치에 더 많은 초점을 두었던 부분입니다.

한인 관련 연구들을 보면, 이민의 가장 큰 이유는 "자녀들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을 주고 싶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진행하는 교회교육이 교육의 목적 및 목표, 내용, 방법, 교육자와 피교육자 등 여러 카테고리에서 살펴볼 때, "성경적 통합교육"의 가장 큰 전제인 "성경을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일(즉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축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가시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여 가르치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이미 "교육 목적 및 목표," "내용," "방법," 그리고 "교육자 혹은 교사" 라는

이제 과연 우리 가정들의 교육적 환경이 어떠한 부분에서 성경적 통합교육을 하기에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아마도 한인 부모님들 중에 이민 후에 교회에 다니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그리고 심지어 그 이유가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심리적 혹은 사회적 이유 때문인 경우가 많은 것과 무관하지 않을

교회보다 자녀가 많은 시간 보내는 가정에서의 교육이 더 중요 신앙적 가치보다 세속적 가치에 더 초점 두지 않도록 일깨워야

카테고리에서 그러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부터는 그 마지막으로 "교육의 장(Educational Context)"이라는 카테고리에서 그러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적 통합교육을 교회의 교육에 적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어 나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에서, 그 교육의 장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뜬금없는 듯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교회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하루만 오며, 그 하루 중에서도 길어야 2시간 정도 교회의 교육에 노출이 됩니다.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에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더라도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진정한 회심에 이르게 되어 스스로가 자녀들의 삶과 신앙을 위한 양육을 해야 함을 깨닫게 되고 이를 실행코자 결심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모님들 역시 스스로가 성경적 신앙관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탓에, 자신들의 가정을 자녀의 삶과 신앙을 성경적인 토대 위에서 교육하기 위한 장으로 삼는 일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성경적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했던 부분 그 두 번째는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을 성경적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삼고 실행하는 일은 매우 힘이 듭니다.

이들에게는 자녀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그래서 얼마나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삶의 이슈가 됩니다.

신앙의 유무와 관계없이, 거의 대부분의 한인 부모님들은 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학업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 학업을 늘 더 우선에 두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 가정들이 성경적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했던 부분들은 부모님들이 가정을 신앙교육의 장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 교회 또한 가정을 교회교육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것이 미미했던 부분, 그리고 이 때문에 혹은 제반 다른 이유들에서, 교회와 가정 양자 간의 교육적 협력이 부재했던 것 등이 있습니다.

이때 사역자들은 먼저 가정이 교회교육의 한 부분임을 인식하고, 부모님들도 스스로의 가정을 신앙교육의 장으로 인식하도록 교육하고, 부모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하겠으며, 가정 내 신앙교육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sinaichung@yahoo.com

전화형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매일가정예배

월 열린 복음의 문(고전17:1-10)찬503장

많은 문제를 해결한 고린도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첫째, 주께서 복음의 문을 열리게 하셨습니까(9). 단으로 열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부활의 주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지상명령을 지금도 계속 실행하십니다.

화 복음의 신실한 동역자(고전17:11-12)찬221장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신실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바울 혼자 모든 일을 하지 않고 일꾼들과 함께 일하게 하셨습니다. 첫째, 디모데 같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이고니온 지역에서 전할 때 믿어 목사가 된 그는, 외조모로 이스의 믿음이 어머니 유니스를 통해 전수된 사도의 복음을 잘 깨달은 유능한 목사였습니다.

수 복음 일꾼이 힘쓸 일(고전17:13-17)찬543장

복음의 일꾼은 사도의 권면처럼 세 가지를 잘 갖춰야 합니다. 첫째, 깨어있어야 합니다(13). 영적각성이 요구됩니다. 외형적으로 아무리 부지런해도 영적으로 근면치 못하면 영적빈곤을 가져옵니다.

목 교회의 교제(고전17:18-22)찬422장

성도의 교회는 언약백성의 이상적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에 일어나는 사랑과 순종의 관계는 교회 안에 흐름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나? 첫째, 마음을 시험해 봐야 합니다(18). 육적인 만족을 능가한 영혼 곁, 마음에 기쁨을 가져오는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금 교회가 누릴 은혜(고전17:23-24)찬84장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며 사는 모임입니다. 어떤 은혜를 누리야 하나? 첫째,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23). 구원을 자신의 죽음으로 성취하신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인 교회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으십니다.

토 사도의 문안(고후1:1-2)찬364장

고린도교인들께 보낸 두 번째 편지를 사도적 문안으로 시작한 바울은 새 언약백성의 은혜에 거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것은 내용과 출처를 분명히 해 그 약속에 머물게 하려했습니다. 첫째, 은혜를 기원합니다. 죄사함을 기본으로 하는 하나님의 호의를 먼저 기원함은 은혜 없이 어느 복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대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열어 놓으신 길에도 난관은 있기 마련입니다. 가나안정복의 약속을 주셨어도 그것을 이루기까지 많은 장애물을 뚫고 나가게 하신 것처럼 고난을 통한 승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과 그것에 따른 삶의 질이 같기에 귀한 동역자가 됐습니다. 둘째, 아블로 같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고린도교회에 교사로써 율법을 필요 있게 가르쳤으나 복음에 관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서 배우려는 관대함이 있었습니다.

에 떨어짐을 나타냅니다. 이 확신이 없다면 이미 그는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곧 회개해야 합니다(고후13:5). 셋째, 서로 순종해야 합니다(16). 깨어서 확신을 가지고 모든 일에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른 표현으로서 경건한 교제를 가리킵니다(시 2:11-12). 셋째, 주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22). 마침내 이 교제는 마음에서 시작해 밖으로 흘러나와 또 다시 위에 계신 주님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다. 먼저 받아 누린 그 사랑은 말씀사역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말씀 안에 거함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성령의 부음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롬5:5). 셋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앞서 말한 은혜와 사랑의 삶은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가리킵니다(23). 오직 그리스도와와의 긴밀한 교제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만이 모든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니다. 둘째, 평강을 기원합니다. 은혜 다음에 평강이 옵니다. 은혜의 주는 평강의 주이시며 평강의 주는 반드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셋째,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 성부와 성자로 오는 것을 보이나 성령의 사역을 의도적으로 가린 이유는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Includes contact info for churches like Galilee, Wagon, and others.

기독교경영 전략

기독교경영 전략(Christian Business Strategy) 강의 (12)



제임스구 교수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행정처장)

하나님 나라에 속한 기업이 되는 7단계(하)

오늘은 지난 칼럼에서 소개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기업이 되는 7단계” 중에서 나머지 5단계부터 7단계를 소개하고자 한다.

5단계: 훌륭한 직원 얻기

하나님 나라에 속한 기업의 5 단계는 훌륭한 직원을 얻는 것이다. 기업가 결에는 기업을 이끄는 부지런하고 재능이 넘치며, 회사를 신뢰하는 직원들이 있다. 기업의 성공과 성장, 그에 따른 외부의 인지도는 직원들에게 충분한 동기를 부여한다. 기업에서 일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 중 하나가 재정적인 하지만, 이것이 첫 번째 동기가

람인지를 분별해야 한다.

6단계: 올바른 순서에서 나오는 올바른 가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기업의 6 단계는 올바른 순서에서 나오는 올바른 가치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가치 단계를 다섯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가장 낮은 단계는 목표나 가치가 부재한 기업단계로 그냥 자연적으로 존재한다. 두 번째 단계는 주주의 가치단계로 주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로 다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반면, 회사의 수익이 최대치에

기업은 대부분 가치 부재 상태에서 시작하여, 이익 창출만을 목표로 하는 주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 그친다. 반면, 어떤 기업은 영원한 가치를 따라 기업을 운영한다. 비록 이러한 기업이 소수이긴 하지만 비즈니스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기업인 경우가 많다.

7단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하늘에 속한 기업의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단계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영원한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는 단계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 판

모든 기업가의 삶의 현장인 기업은 선교와 사역 현장
하나님 나라 실현과 영원한 가치 창출을 기준 삼아야

아니며, 진정한 동기는 자신의 기업에 자부심을 느끼야 한다.

기업에 시련이 찾아오면 함께 마음을 싸야 한다. 또 기업의 성공을 함께 기뻐해야 한다. 자신이 기업의 일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은 공동의 일이다. 이처럼 기업과 함께 하는 직원을 군사라고 부른다. 군사의 마음은 기업과 함께 하며, 기업의 어려움은 군사의 아픔이기에, 군사는 기업을 위해서라면 불 속이라도 뛰어 들 것이다.

이에 반해 용병은 직업인이다. 용병은 그저 회사에 왔다 갔다 할 뿐, 매력적인 일과 고소득을 제공하는 기업을 좋은 기업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다른 기업에서 더 나은 일과 더 많은 봉급을 제시하면 곧바로 떠나 버린다.

기업가는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 당신과 함께 일하는 자들은 용병인가 군사인가? 당신이 직원들을 군사로 다루면 당신은 군사를 얻을 것이다. 군사인 직원은 동역자로서 자신의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한다. 따라서 기업가 당신은 신입 사원을 선발할 때, 그가 기업의 가치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

이르게 하도록 하여, 가능한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이다.

네 번째 단계는 청지기 가치단계로 사회 기여도 포함되며, 기업은 안정적인 좋은 환경의 직장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주주에게만 가치가 있는 기업이 아니라, 거래처와 고객, 직원에게도 가치가 있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 이런 기업을 “훌륭한 시민으로 구성된 기업체”로 인정되며,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사회, 문화 참여에 앞장 선다.

다섯 번째 단계는 분배 가치이다. 분배 가치는 청지기 가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직과 공정하는 기업을 좋은 기업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다른 기업에서 더 나은 일과 더 많은 봉급을 제시하면 곧바로 떠나 버린다.

기업가는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 당신과 함께 일하는 자들은 용병인가 군사인가? 당신이 직원들을 군사로 다루면 당신은 군사를 얻을 것이다. 군사인 직원은 동역자로서 자신의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한다. 따라서 기업가 당신은 신입 사원을 선발할 때, 그가 기업의 가치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

단 기준을 주셨다. 우리는 이 판단 기준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

당신이 세상 기준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박수갈채를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박수갈채를 받지 못할 것이다. 반면, 하나님의 가치기준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면 이 땅에서 실패자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승리의 기쁨을 맛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는 언제나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일에도 책임 있게 충성스럽게 행하는지 점검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확인하신 후 그분의 일을 행할 자원을 허락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향력과 자원, 능력과 명예를 하나님의 이름에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써야 한다.

모든 기업가는 그들의 삶의 현장인 기업이 선교와 사역의 현장이다. 이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의 가치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dr.jameskoo@yahoo.com

인위적 조절과 제한, 드디어 재앙으로 돌아오다

워싱턴포스트, 중국/인도 남녀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보도(하)

외국인 신부

짝을 찾지 못한 중국 남성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기도 한다. 8천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내고 외국인 신부를 찾아 원정에 나선다. 결혼하기 위해 중국에 오는 여성들에게도 국제결혼은 큰 도박이다. 일자리를 약속받았다가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새로 이룬 가정에서 며느리의 위치는 가장 아래일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구조에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짝 없는 남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남성들도 여전히 결혼 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자신보다 어린 남성들과 그 또래 여성을 얻기 위한 경쟁에 참여하게 된다. 2050년이 되면 중국 결혼 시장에는 여성 100명을 두고 경쟁하는 남성이 150-190명에 이를 거라는 예측도 있다. 여성들의 이른바 “상향 선택” 경향도 한 요인이다. 여성들은 자신보다 교육수준, 경제력,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남성을 찾기 위해 시골을 떠나고, 시골에 남은 남성들은 더욱 절박한 상황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캄보디아에서 만난 한 32세 여성은 공장에 취직시켜 준다는 말에 속아 중국으로 갔다가, 마음에 들지도 않는 남성과 결혼을 했다고 털어놨다. “넌 내가 돈 주고 사온 노예야. 내가 원하면 너한테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적도 있어.”

그녀는 남성의 집에 감금된 채로 생활했고, 하루 네 차례씩 성관계를 강요당하기도 했다. 거절하면 폭력이 돌아왔다. 아이를 낳은 지 7일 만에 남편이 성관계를 요구했을 때도 거절하자 구타가 이어졌다. 임신했다가 유산을 한 적도 있었지만, 가족이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아 죽을 뻔한 적도 있다.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고, 돈을 보내지 못하는 것이 미안하기도 해 처음 3년간은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은 견디다 못해 오빠에게 연락을 취했고, 아픈 어머니를 본다는 핑계로 캄보디아에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아이는 데려오지 못했다.

중국의 성비 불균형 문제는 이렇게 이웃 국가들에 리스크를 안겨준다. 서구에서 신랑감을 찾던 러시아 여성들도 이제는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 피부가 하얗고 얼굴이 서구적인 러시아 여성들은 중국 외국인 신부 시장에서 큰 인기다. 또한, 교육 수준이 높으면서도 서구 여성들만큼 “해방된” 존재는 아니라는 인식 역시 인기 요인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지로 떠나는 “신붓감 찾기 여행”에

들어가는 비용은 5천 달러가량이다. 며칠간 현지에서 10-20명의 여성을 만나볼 수 있다. 결혼이 성사되면 추가 비용을 지급한다.

숫자가 많은 쪽은 역시 베트남 여성이다. 이들은 중국 여성들보다 요구하는 것이 적고,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 피부색이 상대적으로 밝고 눈이 크며 날씬하다는 점도 인기 요인이다. 중국인 남성이 베트남 남성보다 성실하고 가정적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중국 남성을 선호하는 베트남 여성들도 있다.

인터넷에서 성업 중인 중국-베트남 결혼 중개업체는 신부가 처녀가 아니면 중개료를 돌려주고, 1년 안에 도망가면 다시 소개해준다는 광고 문구를 내걸고 있다. 라오스나 미얀마에서 중국 남부로 들어오는 외국인 여성들도 많다. 이들은 더 나은 신랑감을 찾아 대도시로 떠나는 중국 여성들의 자리를 메꾸고 있다.

90년대 중반의 기아 사태 이후, 북한에서 건너오는 외국인 신부들도 생겨났다. 다수가 가정 폭력이나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되기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가는 강제노동수용소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만다.

폭력에 맞서다

인도 북부의 하리아나주에서는 지난 10년간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가 127% 증가했다. 이 지역의 젊은 남성들은 빈번한 일 자리도, 여가활동도 없으며 불만을 토로한다. 다수는 지루함과 좌절감을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표출한다. 자기 자신이 소극적인 여성을 쟁취해내는 할리우드 영화 속 주인공으로 여기면서 산다. 인도 정부가 태아 성별 선택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관행은 여전히 전하다. 딸은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도 어렵고 결혼할 때 지참금도 해줘야 한다는 이유로 여아를 낙태하는 부모들이 여전히 많다.

고트라 타파 다하나 마을의 여고생들이 시위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은 매일같이 등교길에 당하는 성희롱을 참다못해 등교 거부와 단식 투쟁에 나섰다. “이브 티징(eve teasing, 이브 놀리기)”이라고 불리는 길거리 성희롱은 여전히 가부장적인 인도에서 오랫동안 큰 사회 문제였다. 성비 불균형이 심해지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보수적인 인도 북부 마을 7천여 곳에서는 “인여 남성”이 마을마다 150-200명씩은 죽어 있다. 이들이 값싼 술을 마시

고 길 가는 여성을 괴롭히는 것은 일상이 돼버렸다.

“여긴 남자가 너무 많아요.” 시위를 이끄는 여고생 니키타 차우한(14)의 말이다. 이들은 작년 5월 뜨거운 열기 속에서 연좌시위를 시작했다. 딸수 증세로 쓰러지면서도 서로 손부채질을 하고 물을 떠먹이며 시위를 이어나갔다. 마을 이장과 어머니들이, 그리고 이웃 마을 여성들이 함께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사는 지역은 인도에서도 성비 불균형이 가장 심한 지역이다. 여성 100명 당 남성이 133명이다.

“이브 티징”을 하는 남성들은 자신들이 무해하며, 일부 여성들이 자신들을 부추기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한 20세 대학생은 여자 친구를 사귀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보수적인 부모님에게는 어떤 조언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넷에 접속하기는 쉬우나, 분보기로 삼을만한 것은 할리우드 로맨스 영화 속 주인공뿐이다.

할리우드 로맨스 영화는 스토킹과 강간을 미화하는 장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자가 싫다고 해도 남자가 계속 따라다니면 결국 여자가 넘어오잖아요.” 이런 남성이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에 이르다 보니 정부는 “착각에 빠진 로미오들”을 단속하기 위해 특별 순찰대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고트라 마을 여학생들의 시위는 작은 승리를 끌어냈다. 무더위에 쓰러져가는 소녀들의 사진이 주요 일간지를 연일 장식하자 학교 당국이 조치에 나선 것이다. 우선 당국은 11학년과 12학년 수업을 마을로 옮겨, 학생들이 먼 길을 걸어 학교까지 오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문제가 된 남성들의 행동을 제어하는 근본적인 조치와는 거리가 멀지만, 승리는 승리다.

여학생들과 연좌 농성을 함께 한 마을 이장은 가부장제가 뿌리 깊은 인도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교육이라고 말한다. “TV와 인터넷으로 넓은 세상을 보고 배우면서 젊은 세대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책상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임시 교실에서 수업을 받게 됐지만, 여학생들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우리가 직접 투쟁에 나서기 전까지는 우리 마을이 이처럼 진보적인 곳인 줄 몰랐어요. 다들 우리를 지지해줄 줄도 몰랐고요. 우리는 이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남가주든든한교회 설립 17주년 및 임직감사예배

Solid Rock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일시: 2018년 6월 3일 주일 오후 3시

장소: 남가주든든한교회 본당

임 직 자

- 장로장립: 손덕수, 오영호
- 집사취임: 박남준, 우재현, 이재영
- 집사임직: 임성호, 윤태원, 마성수, 조한규, 최민
- 권사취임: 김선영, 김영애, 방경옥, 최현옥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남가주든든한교회가 설립 17주년 및 임직감사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쁜 자리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청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서 주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함께 기뻐해 주시며,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김현인 목사 외 교우일동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딤후1:12)